



# 주체 109(2020) 5월간

주체 109(2020)  
5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0 ISSN 1727—9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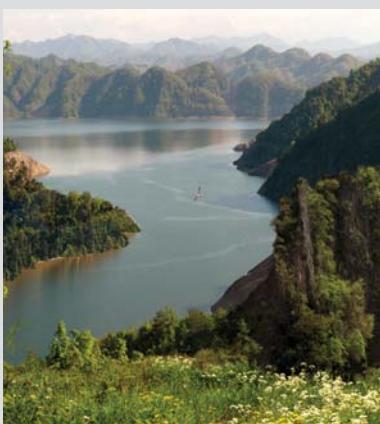


표지: 전력의 질제고를 위해

질좋은 전력생산을 위해 전력계통의 믿음성을 언제나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순천화력발전소의 생산자들.

그들의 노력으로 발전소에서는 해마다 전력생산을 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전력보장을 담보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뒤표지: 수풍호반

편집: 최경희



02

## 차례

양대팡의 새 모습 . . . . .	2
경이적인 사변, 그 저력 . . . . .	8
문 담	
현정세의 주이를 반영한 로선 . . . . .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무장에는 무장으로 . . . . .	12
전격생산자들의 열의 . . . . .	14
질좋은 마그네샤크링카를 더 많이 . . . . .	16
약동하는 중평지구 . . . . .	18
질미가는 들쭉향기 . . . . .	20
새형의 2층빠스 . . . . .	22
인기를 끄는 《송도》신발 . . . . .	22
일심단결을 실현한 당 . . . . .	23
기억명수들 . . . . .	24
민족전통의학, 계승 . . . . .	26
부부체육교원 . . . . .	28
《여 바랄것이 없습니다》 . . . . .	30
보이지 않는 교단에서 . . . . .	32
사진	
금강산 집선봉의 구름 . . . . .	34

고향소식

과학농사의 열풍이 이는 고장	36
-----------------	----

수기

아버지의 삶을 두고	38
------------	----

민족적 존엄과 권리 를 지켜	39
-----------------	----

조국의 품에 안겨

40여년, 학문에 전심하여	42
----------------	----

왕별위하고 종합적인 보건제도	44
-----------------	----

무엇을 노린 도자기 략달이였는가	45
-------------------	----

지명유래

평양	46
----	----

강원도의 역사 유적을 찾아서 (2)	47
---------------------	----

대담

동북활과 우아활을 동시에	48
---------------	----

민족무용-《동돌라리》	50
-------------	----

력사일화

화가 정선이 그린 금강산산수화	51
------------------	----

민족의 항기

극를 뛰어 네아로자	52
------------	----

력사인물

박세강과 그의 카페 《색경》	52
-----------------	----

사화

촉석루의 의암	54
---------	----

명승-보관봉	55
--------	----

상식

훈·친·미	31
-------	----

40대의 건강을 뒤받침하는 음식	45
-------------------	----

고구려 대동강다리	46
-----------	----

조선 속 담 (겸손성)	43
--------------	----

유모아

숙보지 말라	51
--------	----





## 양덕탕의 새 모습

조국인민들속에서 온천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양덕에로의 즐거운 휴양길에 오른 손님들과 함께 평양-온정행 제39렬차에 올랐다.

사리원시 은별동에 산다는 한 젊은 부부는 우리에게 《며칠 전 양덕에 갔다온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빼스를 타고 가지 말고 평양에 가서 꼭 기차를 타고 가라고 하길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정말 새 열차가 멋집니다.》라고 하였다.

휴양생들은 환희롭고 유쾌한 휴양생활을 그려보는 듯 저으기 흥분되어 있었다.

드디어 열차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첫 대문파도 같은 온정역에 도착하였다. 역전에

는 휴양생들을 마중나온 전용빠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빼스를 타고 우리는 휴양지로 향하였다. 빼스는 소나무숲이 우거진 산촌의 풍경에 어울리게 건설된 각이한 호화별장을 방불케 하는 숙소들과 봉사건물들을 지나 스키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문주앞에 멈춰섰다. 빼스에서 내린 휴양생들은 천연바위에 《양덕온천문화휴양지》라는 글발이 있는 문주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려관에 려장을 풀어놓자마자 서둘러 야외온천장으로 향하였다.

봉사원들이 내주는 실내복을 갈아입고 야외온천장까지 길게 뻗어간 외랑에 들어서니 외랑밖은 소나무아지들에 흰눈이 소북이 내려앉은 겨울이였지만 사람들은 산보길을 걷듯 유유히 오가면서도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하였다. 은행나무잎온탕이며 측백나무잎온탕, 박하온탕, 당귀온탕, 피마주잎온탕과 같이 약재를 첨가한 온천탕들에서도 몸을 잠근 사람들이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있는듯 하였다.

천연의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야외온천장의  
맨 웃쪽에는 《소나무》우에 올라앉은 다락식  
온천탕이 자리잡고있었다.

우리도 온천물에 몸을 잠그고 산천경개를 굽

어보니 세상에 천하제일미가 있다 한들 그 꽤 감  
보다 더 좋을듯싶지 않았다.

닭알삶는 터에서는 남녀로소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큰닭, 중닭, 작은닭을 형상한 닭알삶는 그릇

에 수십알씩이나 넣어 닭알처럼 생긴 옥조안에 띄  
워놓으면 15분만에 반숙이 되고 20분만에는 완숙  
된 닭알로 되었다. 온천물에 있는 불소, 류황을 비  
롯한 약효성분들을 충분히 빨아들여 반숙된 양덕  
온천의 닭알맛은 확실히 특이하였다. 누구라 할것



없이 반숙한 닭알과 완숙된 닭알을 몇알씩 먹고 서야 자리를 뜨군 하였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실내온천장을 찾아 유명 짜한 물고기온천욕조로 먼저 발길을 돌리였다. 작은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피부를 쪼아주는데 물고기온천욕조에만 들어가면 너나할것없이 나 올념을 하지 않았다. 한 봉사원은 평시에 무뚝뚝 하던 사람도 이 옥조에만 들어가면 근 2 000마리나 되는 친절어들의 간지러움에 웃음을 터뜨리며 《여기 물고기들이 이름그대로 정말 친절 합니다.》라고 기쁨을 금치 못해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도 조선의 국수 소나무가 우거진 실내온천장에서 솔잎온탕, 고온욕, 미온욕, 덕수맞기 등 각이한 온천봉사를 차례로 다 받았다.

각종 운동기재가 꽉 들어찬 운동실도 사람들

로 흥성거리였다.

양덕온천의 진미를 한껏 체험하려면 온천욕과 함께 스키타기를 결합하여야 하였다.

스키교원의 지도를 받으며 한발자국한발자국 걸음을 떼다가는 넘어지기를 거듭하면서도 스키타기를 포기하지 않는 녀인, 어린이들로 흥성거리는 썰매주로, 눈오토바이를 타고 저마다 탄성을 터치는 사람들…

스키장에서 스키주로를 따라 눈발을 훌날리며 질주하는 휴양생들의 모습은 마치도 하늘에서 흰 비단을 타고내려오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스키복, 스키신발을 비롯한 기재들로 《행장》을 갖춘 휴양생들과 함께 스키주로의 정점까지 아아하게 빨어올라간 삶도에 몸을 실었다.

양덕의 높고낮은 산발들이 우리의 눈앞에 점

점 크게 다가들었다.

대봉정점에 오른 우리는 뜻밖에도 해발 800m가 넘는 봉우리에서 양덕의 특산물인 군고구마맛을 보고 휴식각에서 온정땅의 더덕이며 고비 등을 넣고 끓인 뜨끈한 산나물국으로 점심식사까지 하였다.

휴양생들은 온천문화의 희한한 세계를 체험하면서 《스키도 타고 온천욕도 하니 청춘을 되찾은 심정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고급봉사를 받으며 랙을 누리였다.》라고 감탄하고 있었다.

어둠이 짓들기 시작하자 저 하늘의 은하수가 땅우에 통채로 내려앉은듯 양덕온천지구에 신비로운 별천지가 펼쳐졌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환해지는 밤, 고요와 정적을 밀어내는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더더욱 즐거워지는 양덕의 밤이였다. 이곳에서의 체류기일은 아쉬울 정도로 짧았다.

파연 며칠이 걸려야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곳곳을 다 돌아보며 맛볼수 있겠는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곳곳에 펼쳐진 이 문명의 세계가 파연 자연이 준 온천수의 혜택이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온천수는 변함없이 흐르고있지만 오늘날 양덕땅에 문명의 새 모습이 펼쳐지게 된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은정에 의한것이 아니랴.

렬차를 타고 떠나는 휴양생들의 눈앞에서 온정땅은 멀어져도 그들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다가들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명호

주체 109(2020)년 1월 중순 촬영



# 경이적인 사변, 그 저력

예측을 뒤집다

조선이 더는 견디여내지 못할것이다. 조선의 힘에도 한계가 그어질것이다. …

더욱더 가증되는 적대세력들의 제재를 목격하면서 세계의 적지 않은 언론들이 내린 평이다.

그러나 조선은 세계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

남들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려앉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속에서 조선은 지난해 놀라운 기적과 사변들을 이룩하였다.

끈질긴 제재와 압살의 포위망속에서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으로 천지개벽되고 대규모의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도처에 선진문명의 창조물들이 일떠섰다.

자연의 변덕속에서도 농업부문에서 전례없는 대풍이 마련되고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이 현저한 장성추세를 보이였다.

제재의 소용돌이속에서 조선은 평화수호의 힘도 막강히 재워나갔다.

새형의 위력한 잠수함건조와 신형전술유도탄의 성공적인 발사, 초대형방사포개발,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시험발사성공…

세계군사학계는 다시한번 놀랐다. 《조선, 6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세계 어느 나라도 개발해본적 없는 초대형방사포개발》, 《기존 <북극성>계렬 탄도탄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군사대국들만 가지고있는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싸일, 잠수함탄도미싸일의 3종 세트를 완벽히 갖추었다.》, 《북의 기술개발속도는 전세계에 놀라움을 안겨줄만큼 참으로 빠르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 한 돌기도 채우지 못한 세월에 그것도 레사로운 환경도 아닌 최악의 조건에서 조선은 급상승을 이룩하였다.

《조선이 더는 견디여내지 못할것》이라는 세계의 예측은 《그 어떤 제재도 통하지 않는 조선》이라는 사실로 뒤집어졌다.

## 조선의 저력

지난해 조선의 기적과 사변들은 결코 하늘이 준 우연도 자연부원이 준 덕택도 아니다.

조선을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

지난해 조선반도정치정세는 매우 침예하였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면서 북남합의리행을 파탄시켰으며 앞에서는 대화타령을 하고 뒤에서는 6. 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대조선제재압박책 동에 끈질기게 매여달렸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음폐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적대적움직임들이 더욱 로끌화되었고 경제적압박도 펼쳐지였다.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수 있다는 미국의 《제재만능론》이 조선에 가해졌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조선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의 2중적행태를 명백히 까밝히시고 단호하고도 강경한 결단을 내리시였다.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을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다. …

추호도 굽힘이 없는 그이의 선언은 행성을 흔들었다.

《자주적대가 강하신분》, 《강인담대한 배짱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분》, 《정치정세를 용의하게 주도해나가시는분》 …

하다면 세계가 경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뛰여난 정치실력의 근거에는 무엇이 응축되어있는 것인가.

그것은 백두의 혁명적신념과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조선의 성산인 백두산의 기질과 정신을 친품으로 지니고계시는분이다.

백두의 맵짠 칼바람파도 같은,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백두산악파도 같은 그이의 기질과 정신은 그대로 정치령도에 반영되고있다.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 길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견결히 맞받아나가는것이 그이의 령도방식의 고유한 특징이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12월에 백두산에로의 군마행군을 단행하신것은 그이의 신념과 의지를 더 깊이 느낄수 있게 하는 계기점이다.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이 슴배여있는 성스러운 곳이다.

-40°C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 겹겹이 에워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포위망을 맞받아뚫고 끌끌내 조국해방을 안아온 항일빨찌산의 정신,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나가려는것이 그이의 신념이고 의지인듯싶다.

완공된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품이다.

오직 당만을 믿고 자력갱생의 힘으로 시련과 난관을 굴함없이 헤쳐온 인민과 함께라면 절대로 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것, 그런 인민을 위해서라면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뿐 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것이 그이의 지론이고 인생관이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들 생각뿐이다.

불리한 기후조건때문에 남새가 부족하여 불편을 느끼는 함경북도의 인민들을 위해 중평의 중요한 군사기지를 철수시키고 남새온실을 꾸리도록 하시면서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농장이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신 그이이시다.

사랑과 믿음에는 마음이 따라서는 법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매혹되어 인민은 애국의 한마음으로 령도자를 받들어가고 있다.

사랑은 검을 이긴다는 말이 있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사랑과 정으로 맺어진 혈연의 뉴대는 그 어떤 힘으로도 깰수 없는 가장 강위력한것이다.

그 뉴대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며 시련과 곤난이 첨첩할수록 더욱 강해진다.

그것은 바로 령도자가 선택한 길이 가장 정당한 진리의 길이며 그 길에서 모든 복락이 온다는 것을 인민은 철리로 굳게 믿고 확신하기때문이다.

오늘 조선의 기적적인 사변들을 안아올리는 인민의 자력자강의 정신력도 바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신뢰심이 안아온것이다.

세계의 광범한 출판보도계와 인터넷홈페이지들은 조선이 지난해 거둔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이렇게 전하였다.

《여느 나라 같으면 당장에 붕괴되거나 손을 들고 나앉았겠지만 조선은 더 억세게 솟구치며 자기가 선택한 길로 나아가고있다. 조선의 신비로움은 이 나라를 이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조선인민이 지니고있는 강한 정신력에 기인된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조선중앙통신

문답

## 현정세의 추이를 반영한 로선

조성된 대내외형세하에서의 당면한 투쟁방향을 밝힌 정면돌파전에 관한 로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본사기자는 이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소장 서성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사상은 현정세의 추이를 반영한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한 사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과학성은 어디에 있는가.

소장: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정면돌파사상이 조성된 정세하에서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제끼기 위한 혁명적인 전략이라는데 있다.

오늘날 적대세력과의 대치는 장기성을 띠게 되었으며 앞으로 부정의의 도전과 횡포는 더욱 가증될것이다.

또 적대세력은 앞에서는 대화타령을 하면서도 뒤에 돌아앉아서는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통제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사이에만도 미국은 우리의 선의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려놓고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십여차례의 단독제재조치까지 취하였다.

만일 우리가 엄혹한 난국에 위축되어 맥을 놓고 순간이나마 주저한다면 적들의 발악적공세는 더욱 거세여질것이다.

주동적인 공격, 과감한 정면돌파전만이 이미 이룩한 값비싼 승리를 더 큰 승리에로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체적힘은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동력이며 그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물론 사회주의건설에서 유리한 객관적조건이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주체가 튼튼히 준비될 때만이 불리한 형세를 유리하게 역전시키며 밝은 전도를 열어나갈수 있다. 반대로 주체적힘을 강화하는 사업을 앞세우지 않으면서 그 무슨 성과를 바란다면 그것은 나무를 가꾸지 않고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이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용진하여온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우리 국가의 정치군사적위력이 백방으로 다져지고 경제적잠재력도 비상히 강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주체적힘이 장성하여야 자립, 자강의 거창한 위업을 성과적으로 진척시켜나갈수 있다.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를 객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명확히 찾고 그 극복방안을 틀어쥐고나갈 때 주저할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따라서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게 하는 정면돌파전에 관한 로선은 조성된 현정세하에서 가장 정당한 로선으로 된다.

기자: 오늘 정면돌파전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열의가 대단하지 않는가.

소장: 옳다. 그 열의는 비할바없이 높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의 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고있으며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강원도인민들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인민들은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더욱 증대하여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양양된 열의와 무한대한 힘과 지혜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겨오게 될것이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기자: 감사하다.

\* \* \*

## 무장에는 무장으로

(전호에서 계속)

듣고보니 채수항이 머리를 썩일만도 하였다. 그 당시 상급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일군들중에는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극단적인 요구를 마구 내리며 아래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좌경분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채수항에게 아버지와의 계급적 《계선》을 가르지 못했다는 《파오》를 뒤집어씌워 그를 현당서기의 직책에서 해임시켰다가 다시 복직시키기까지 하였다.

나는 채수항의 울적한 기분을 돌려세우려고 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다.

그러자 채수항은 룽조로 이제 우리 군대가 조직되면 선참으로 입대하여 기관총수로 되겠다고 하였다.

『무관은 어울리지 않아. 채동무한테야 문관이 천분이지.』 나도 웃으면서 룽을 하였다.

그렇지만 그 룽속에는 진심이 담겨있었다. 나는 그를 타고난 정치일군이라고 생각하였다. 채수항이 만일 살아남아서 혁명군에 입대하였더라면 틀림없이 련대나 사단급의 정치일군은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유격대를 창건하고 무장투쟁을 한창 벌리고 있을 때 그는 대립자부근에서 일본 《토벌대》놈들에게 학살되었다.

오빈은 룽정동홍중학교시절부터 체육선수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는 훈춘현운동대회에서 씨름에 1등을 하여 황소

까지 탄 일이 있는 소탈하고 활하고 날파람있는 동무였다.

나는 오빈이야말로 혁명군대의 맹장이 될수 있는 무관형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람을 사귀면 이 사람은 혁명군대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할수 있겠는가 하고 가늠해보는 나의 버릇은 이 무렵부터 생겼다고 할수 있다. 항일전쟁을 목전에 둔 당시의 긴박한 정세가 나를 그러한 《타산가》로 만들었던 것 같다.

석건평나루에서 배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간 우리는 동관진의 두량조합 콩정선장에 들리였다. 이 조합에서는 일제가 만주에서 래탈해오는 콩을 등급별로 나누어 계량하고 그것을 마대에 넣어 일본으로 실어보내는 일을 하였다.

우리는 간도에서 품을 팔려나온 인부로 가장하고 로동자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간도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로동자들은 추수투쟁에 대한 화제를 꺼냈다. 추수투쟁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대체로 비판적이였다. 왜놈들이 만주를 강점하기 전에도 간도에서 술한 폭동들이 일어났다가 실패했는데 하물며 그놈들이 만주를 침략하고 있는 때에 추수투쟁 같은것이나 벌려 가지고 무슨 승산이 있겠는가, 이 투쟁도 결국은 5. 30폭동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지금은 어떤 투쟁을 벌려도 소용이 없다, 보라, 일본군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계

다가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국제기구에서도 그놈들의 편역을 드니 약소민족이 바라볼때가 더는 없지 않은가 하는것이 로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그때 로동자들이 우리에게 한 말을 듣고 나는 세가지 측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바 하나는 혁명가가 민심을 잘 알려면 항상 대중속에 있어야 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장투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화하는 사업을 더 다그쳐야 하겠다는것이였으며 또 다른 하나의 충격은 그 어떤 형태의 투쟁도 대중이 그 의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동원되기 전에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것이였다.

나는 로동자들의 허무주의적이고 자포자기적인 견해를 들으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을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여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어야겠다는것을 더욱 절감하였다.

그날 우리는 광명촌청년회 회장으로 사업하고 있던 최성훈의 집에서 국내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임자들의 회의를 열고 무장투쟁과 관련된 국내혁명조직들의 파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나는 회의 참가자들에게 9. 18사변후의 급변한 정세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릴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는것과 무장

투쟁을 개시하는것은 우리 혁명투쟁의 합법칙적인 요구이며 질적인 비약이라고 강조하고나서 두가지 큰 파업 즉 군사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는 파업과 함께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해야 할 파업을 제기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라는 격동적인 사변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무장대오의 조직을 돋기 위한 창발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열변을 토하였다.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혁명력량준비문제는 1931년 5월의 공수덕회의에서 이미론의되고 확정되었다. 이런데 기초하여 광명촌회의는 무장투쟁이라는 새 사변을 앞두고 국내혁명조직들앞에 나서는 실천적 과제를 토의한셈이였다. 이 회의는 국내인민들과 혁명가들에게 보내는 무장투쟁의 예령이였고 사전신호였다. 회의과정에 표현된 무장투쟁에 대한 국내혁명가들의 적극적인 공명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나는 종성에서 하루를 묵고 인차 간도로 돌아와 채수항, 오빈과 헤어졌다. 우리는 12월 중순경에 명월구에 다시 모여 무장투쟁준비사업을 총화하고 무장투쟁의 구체적인 방도와 전략전술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그후의 나의 모든 일정은 명월구회의준비에 바쳐졌다. 회의준비라고 하면 보고서나 결정서와 같은 문건들을 먼저 넘두에 둘수 있는데 그때의 회의준비란 로선문제를 구상하고 전략전술을 규정하는 모색과정을 의미하였다. 사상을 성문화하는것은 부차적인 공정이

였다.

나는 특히 무장투쟁의 형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색에 많은 시간을 바치였다.

黠스-레닌주의리론에서도 무장투쟁의 의의를 강조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는 공식적규정은 없었다. 어느 시대에나 다 들어맞고 또 어떤 나라에나 다 적용할수 있는 그런 처방이란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나는 무장투쟁의 형식을 모색하는데서도 교조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무장투쟁에 대한 론의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정세에 대처할 파업을 토론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동장영을 만나기 위해 동만특위로 찾아갔다. 만주땅에서 무장력을 창건하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는것만큼 우리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협조를 무시 할수 없었다.

무장투쟁문제는 만주지방의 중국공산주의자들속에서도 일정에 오르고있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로농홍군은 9. 18사변후 군중을 조직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며 무장으로써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자고 호소하였다.

같은 파녁을 향해 함께 총구를 겨누어야 할 조중공산주의자들앞에는 그 어떤 철퇴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튼튼한 공동전선을 맺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지지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제기되었다.

특위서기로 임명된 동장영도 일본군대의 《토벌》에 죽을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룽정시가지에 들어와있으면서 나를 만나려고 하였다.

밀정들이 우글거리는 룽정시 가지에 들어가는것은 위험한 일 이였으므로 나는 그를 명월구로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동만특위에서는 아직 간도실정에 어두운 동장영이 특위가 이동된것도 모르고 그 행방을 수소문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밀정들에게 걸려들어 감방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뜻밖의 소식은 나를 실망케 하였다. 만주성당 서기 라등현과 성당군사위원회 서기 양림은 9. 18사변후 심양을 떠나 행처를 감추고 있었고 양정우는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여서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나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동장영을 구원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동지들과 함께 그 방도를 의논하였다.

이런 때에 고보배(보배는 별명)라는 사람이 자기가 동장영을 구원해보겠다고 자청해나섰다. 요술사처럼 특별히 손놀림이 빠른 그는 《쓰리》를 잘했다. 마주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머니에 꽂혀있는 만년필도 눈깜빡할 사이면 뽑아내 군하였다. 고보배가 이런 장난을 잘하기때문에 그가 가는 장소에서는 매번 물건이 《잃어지는》 소동이 일어나곤 하였다.

이 사람이 룽정시내에 가서 쓰리를 한번 하고 우정 경찰에 잡혀들어가 감방에 있는 동장영을 만났다. 고보배가 감방에 들어가서 경찰들을 어떻게나 구슬려놓았던지 특위서기는 그후 구류장에서 인차 풀려나왔다. 그렇게 되여 그가 명월구회의에도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다음호에 계속)

# 전력생산자들의 열의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이 힘 있게 울리고 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예비를 찾아내고 더 많이 증산절약하는 경쟁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판철에서 큰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발전소에서는 발전설비들의 가동일수를 종전보다 훨씬 늘여 같은 조건에서도 지난 시기에 비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높아진 전력생산계획수행을 위해 이곳 발전소의 일군들은 과학기술을 앞세워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있다.

원일석부기사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기술자들은 발전기기동시 고압전동기의 연기동방법

을 운영에 도입하여 호기기동시 제기되던 전동기소각사고를 완전히 없앨수 있게 하였다.

직장들사이에 새 기술창안도입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생필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보이라와 열설비들의 효율을 높일수 있는 년산 10만瓩 능력의 단열보온벽돌생산공정확립을 비롯하여 해마다 80여건의 크고작은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전기타빈보수직장에서는 급수밸브의 회전날개각도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보이라의 출력을 훨씬 높이였으며 자동화직장에서는 모든 보이라들에 수자식중유류량계를 새로 도입하여 보이라운영의 과학화수준을 한단계 높이였다.

열생산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에서도 가치있는 기술혁신으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소에서는 설비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불량개소를 미연에 찾아내는것을 생산에 앞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발전소가 최근년간 해마다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되고 있다.

발전소의 현실은 자기 단위의 발전에서 의거해야 할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며 인재들을 중시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는데 전진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 질좋은 마그네샤크링카를 더 많이

단천마그네샤공장은 무진장한 마그네사이트를 원료로 하여 마그네샤크링카를 비롯한 수십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마그네샤크링카는 그 질이 높아 오래전부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공장의 전기용융로에서 생산되는 마그네샤크링카는 품질이 높아 전자재료와 광학유리재료로 쓰이며 핵반응로의 고급내화물로도 널리 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일반크링카의 질도 높아 내화물재료로는 그저 그만이다. 무연알탄을 연료로 하는 소성로들에서 생

산되는 마그네샤크링카 역시 전기용융로에서 나오는 일반크링카만큼 질좋은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공장에서는 선질후량의 목표를 세우고 다량생산으로부터 제품들의 질을 훨씬 높이며 원가를 줄이기 위한 힘을 넣고 있다.

공장의 기술일군인 김철선은 『제품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공장에 든든한 기술력량이 있고 모든 종업원들이 이 사업을 지지하고 떨쳐나서니 목표는 반드시 점령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머지않아 개조된 전기용융



로에서는 고질마그네샤크링카의 비중이 훨씬 높아질것이며 소성로들에서 구워진 크링카들은 종전에 비해 품질이 높아질것이라고 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약동하는 중평지구

지난해 12월초에 준공된 중평남새온실농장과 함경북도양묘장이 생산에 들어갔다.

지난 1월에 오이, 도마도, 호박, 고추 등 열매 남새들에 대한 첫 수확을 한데 이어 남새온실농장에서는 봄철에 들어서서부터 그 수확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열매남새뿐 아니라 여러가지 일남새들이 키운 움하며 호동마다 풍요한 작황을 펼쳐놓았다.

50여정보의 면적에 300동의 반궁릉식 2중박막 온실을 비롯하여 총 320동의 수경온실과 토양온실로 되어있는 온실농장은 그 전경도 볼만 하지만 푸르싱싱한 남새들로 꽉 들어찬 온실안은 남새《바다》를 련상케 하였다.

최현기 중평남새온실농장 기사장은 《우리는 선진적인 남새재배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수확고를 높여나가고 있다. 도안의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농장은 원통기둥식립체재배방법과 얇은층막호

름재배방법 등 새로운 수경재배방법을 받아들이고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은 여러 품종을 선택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다.

더우기 생산공정이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되어있는 농장환경은 생산활성화의 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다.

온실농장옆에 자리잡고있는 수십정보의 양묘장에서도 생산을 시작하였다.

3월에 들어서 경기질생산을 앞세워 수지경판 온실에서의 창성이깔, 금야흑송, 적송에 대한 수지용기파종을 마감지은데 이어 야외재배장에 대한 파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해에 2천만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안철룡





## 질어가는 들쭉향기

예로부터 토법으로 술과 단묵 등이 만들어져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어온 들쭉은 《푸른 금》으로 불리워왔다. 인체에 대단히 유익한 이 열매에는 당분, 단백질, 조지방, 펩틴, 섬유질, 비타민C 등이 조화롭게 들어있다.

세계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 천연수림지대인 백두산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들쭉은 그 인기가 높아 《삼지연》상표밑에 각종 가공식료품으로 전환되고 있다. 들쭉술, 들쭉단물, 들쭉단묵, 들쭉단졸임…

바로 백두대지의 명물-천연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삼지연들쭉음료공장이다.

최근년간 양강도 삼지연시꾸리기와 때를 같이 하여 새로 일떠선 공장은 벌써 많은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곳 생산자들의 지향을 청취하면 한결같이 《우리의 것으로 명제품을 생산》 하자는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공장에서는 자력의 열쇠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종업원들의 지식정도와 능력, 직종, 단위별특성에 맞게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전반적인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있다.

종업원들은 누구나 교대가 끝나면 과학기술보급실을 찾고 있다. 이들은 여기서 과학기술전당, 국가과학원,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등과 협력하여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의문도 풀고 자기들의 창의고안도 무르익히고 있다. 최근에만도 전처리공정에 서리는 증기를 없애기 위한 문제, 흐름선을 통한 들쭉제품운반의 안전성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 들쭉단졸임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문제 등 많은 창의고안을 내놓아 생산에 도입하였다.

공장에서는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다량생산으로부터 질제고로 경영전략을 펴고 있다.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이 공장의 제품들은 그 맛과 질이 좋아 삼지연시주민들은 물론 각지



의 많은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다. 특히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자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백두산의 들쭉향기는 사람들의 생활속에 점점 질어가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흥정혁  
주체109(2020)년 1월 중순 촬영



## 새형의 2층빠스

가 종전에 비해 진동과 소음이 적으며 속도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년간 조국에서는 인민들의 려객운수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이를 위해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들, 지하전동차와 2층빠스들을 련이어 생산해내고있다.

자체의 기술과 힘으로 만들어낸 룬전기재들을 보며 사람들은 우리의 자력갱생산물이여서 더없이 소중하고 궁지롭다고 말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리정

70개의 좌석을 가진 빠스는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에서 제작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좋다.

리용하는 손님들의 대다수

## 인기를 끄는 《송도》신발

최근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상업봉사 망들에서 《송도》상표를 단 신발들이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이 신발들은 하나같이 모양이 꼽고 질이 좋을 뿐아니라 경량화되어있으며 신으면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것이 구매자들의 반영이다.

《송도》신발은 평양동암문기술교류사에서 생산되고있다.

강학철사장과 실무일군들은 최신과학기술을 전통적인 신발제작방법에 구현하여 신발을 다품종화하면서도 품질향상에 목표를 두고 7년전부터 고심어린 길을 개척해왔다.

그 나날 련판부문의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각종 문양과 형태의 신울을 1mm의 편차도 없이 맵시있게 재단하는 레이자재단기와 종전의 일반건조로에 비해 접착제기를 근 3배나 높일수 있는 적외선건조로도 실정에 맞게 자체로 제작설치하여 신발의 질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부단한 창조》, 《선질후량》을 기업전략으로 내세우고있는 교류사에서 생산한 신발들은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19》를 비롯하여 여러 신발전시회들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지금 《송도》신발에 대한 수요는 신발공업부문에서 혁신과 전통이 있다고 하는 공장들을 무색케 할 정도로 급증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엄향심



## 일심단결을 실현한 당

조선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비결의 하나가 일심단결에 있다.

인민이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다.

지심깊이 뿌리내린 소나무가 사철 푸르고 굳센것처럼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만이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승승장구할 수 있는것이다.

조선이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제재압박, 련이어 들이 닥친 자연재해속에서도 경이적인 사변들과 성파들을 이룩하고 있는것은 바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의 일심단결은 위대한 사상과 전통에 기초하고있다.

단결은 승리의 기치이고 무한대한 힘이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으로 굳게 묶어세운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이 일심단결을 이룩하자면 전체 인민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한 사상과 전통이 있어야 한다. 사상은 단결의 기초로 되며 전통은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재부로, 초석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근로하는 인민을 하늘로 내세우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운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있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전

체 인민이 이 사상에 열렬히 공감하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된것이다.

단결의 전통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었고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더욱 계승발전되어왔다.

조선로동당이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은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밀에 혁신과 광풍속에서 일심단결을 더욱더 다져왔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멀사복무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치리념이다.

조선로동당의 혁신과 인민대중에 대한 멀사복무로 이어져 있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은 물론 최악의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고난의 행군시기나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압박속에서도 굴함없이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해나가는 전기간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한 본래를 순간도 흐리지 않고 인민적인 혁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나라의 북부지역에 자연재해가 들이닥쳐 인민들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조선로동당은 모든 힘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총동원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켰다.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정책이다.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

지를 비롯한 조국땅 곳곳에 일떠서는 인민의 보금자리와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비롯한 창조물들을 보면서 인민은 조선로동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갈 때 자기들의 행복이 있고 미래가 담보된다는것을 폐부로 느끼게 되였다.

당은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밀바탕에는 바로領導자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이 놓여있다.

이처럼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밀에 혁신과 광풍속에서 더욱더 다져진 조선로동당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단결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당의 향도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는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당으로 건설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일심단결을 실현한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오늘 사회주의승리의 날을 앞당기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더욱더 뚜렷이 확증되고 있으며 조선은 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 기 영 명 수 를

### 이례적인 경기성과

지난해 12월 중국 호북성 무한시에서 진행된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조선선수들이 전례를 깨뜨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40여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온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10개의 세부종목 성인급 경기에서 6명의 조선선수들은 압도적인 점수차 이로 나라별종합순위 1등을 쟁취하였다.

그들은 선수권대회 메달총수의 거의 70%에 해당되는 금메달 11개를 포함한 28개의 메달과 6개의 컵, 6개의 국제기억대가상장을 수여받았으며 4개의 종목에서 기니스세계기록을 보유하였다.

대회기간 우리 선수들은 뜻밖의 상황에서도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첫날 30분2진수기억경기가 시작될 때였다.

우리 선수들은 조직자측에 이미 제시된 7 500개의 문제에 3 000개의 수를 더 첨부해줄것을 제의하였다. 요구가 수락되고 경기는 진행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경기를 끝낸 우리 선수들이 앞부분과 뒤부분의 문제가 반복된것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전유정은 그때의 경기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문제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성적은 매우 높이 나와 유리한 점도 없지 않았다. 더우기

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우승에 자그마한 허점도 거짓도 허용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경기를 다시 치르기로 결심하였다.》

조직자측은 조

선선수들의 제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3일 후에 이 종목에 한해서 경기를 다시 조직하였다.

3일간의 경기를 치르느라 극도로 몰린 정신육체적 부담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여 또다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경기후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선수들의 성적이 믿기 어려운지 재평가해볼 의향을 제의하였다. 1시간 수기억과 1시간주파기억, 불러주는 수기억에 한해서 정확하고도 거칠없는 대답앞에서 그들은 우리



전유정

선수들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폐막식때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모범출연에 참가한 우리 나라의 김주성은 관중이 불러주는 120개의 수를 완벽하게 기억해냄으로써 관중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회기간 평시에는 몰랐던 참으로 귀중한것을 느꼈다며 류송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개인의 승부가 아니라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위해 분발하였다. 그 과정은 곧 모두의 머리속에서 <나>라는 개념을 완전히 잊게 하였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우승을 메꾸어주는 동무가 그때만큼 고맙게 생각된적은 아마도 처음인 것 같다. 조국의 영예속에서 우리의 우위는 더욱 두터워졌다.》

이례적인 경기성과, 그것은 선수들모두가 하나의 마음과 지향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였다.

### 기억대가들과 스승

자식은 부모를蹈고 학생은 교원을蹈는다는 말이 있다.

경기 전과정을 조선판으로 만든 선수들의 모습은 그대로 그들에게 혼심을 다 바쳐온 교육자들의 모습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

세계기록을 깨고 무차별개인종합 1위와 3위를 한 류송이와 전유정은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있다.

그들은 이번 경기성과는 전적으로 박철진선생님의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스승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평양외국어대학 중어학부 교원인 그는 주체102(2013)년부터 진행된 국내기억경기들에서 대학이

5연승을 하는데 기여한 38살의 젊은 부교수이다. 엄하면서도 다심한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때는 부모사랑그대로라고 학생들은 이야기하고있다.

이번 경기성과를 총화하며 박철진은 제자들에게 보다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면서 제일 약한 고리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모색하고있다.

이름 및 얼굴기억의 특기를 가진것으로 하여 이미 앞선 대회에서 세계기록을 돌파하고 또다시 성과를 거둔 리성미와 1시간주파기억종목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운 김수림은 김형직사범대학 학생들이다.

김수림은 외국어를, 리성미는 생물학을 전공하고있다.

이들의 지도교원 차영호는 자기식의 독특한 교육방법으로 기억대가들을 키워내여 국내뿐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초점을 모으고있는 교원이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여난 학생들이 오늘 이렇게 기억대가로 자라날수 있은것은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에 기인된다.》라고 말하였다.

모범출연으로 관중의 선망을 모았던 김주성과 추상도형종목에서 2위를 한 전금평은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다.

기억명수들을 만나볼수록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자기를 키워준 선생님들과 교육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폐부로 느끼고있는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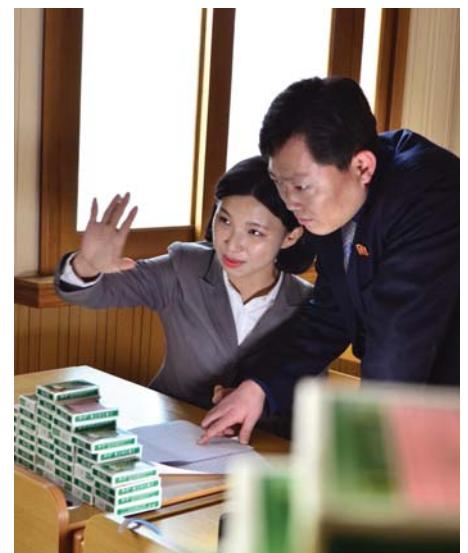
세계기억력선수권리사회 총회장은 《세계가 조선의 교육을 들어다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류송이(왼쪽)



김형직사범대학의 지도교원 차영호와 김수림(왼쪽),  
리성미(오른쪽)





## 민족전통의학, 계승

『마술인가, 아니다. 그러나 마술처럼 신비하다.』

이것은 조선의 민족전통의학인 고려치료를 받아본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선민족의 귀중한 유산인 고려의학은 오늘 국내범위를 벗어나 세계각지에서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되고 있다.

B.C. 3000년에 벌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돌침을 이용한 돌침치료법을 창조하였고 인삼, 마늘, 쑥과 같은 약초들을 이용한 고려치료는 오늘도 련면히 이어지고 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고려의학종합병원은 전통의학부

문 과학연구기지, 치료예방 및 의료봉사거점이다.

내파병원, 외파병원, 침구병원과 같은 3개의 전문병원들과 체질연구소를 비롯한 4개의 연구소 등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는 고려의학적치료와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시기 침, 뜸, 부항파 수법치료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병원에서는 고려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여러가지 고려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그 과정에 난치나이치료법을 과학적으로 완성하고 일련의 난치성질환과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었으며 고려의학과 현대의학을 배합한 담석증치료방법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전국에 일반화하였다.

그리고 마황비만알약과 전기침배합으로 비만증을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에서 마황비만알약을 구격화하여 환자치료에서 효과를 보고 있으며 귀침혈색조평가에 의한 질병예보진단체계를 개발하여 짧은 시간안에 질병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귀침혈색조평가에 의한 질병예보진단체계가 호평을 받고 있다. 인체에 병이 오면 피부에 색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귀침혈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게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의 귀를 가리켜 인체내장상태를 들여다보는 창문, 뇌수의 거울, 전통의학과 신의학을 연결시키는 다리로 불려왔다.

김덕윤연구사는 병원에서 연구완성한 귀침혈색조평가에 의한 새로운 질병예보진단방법은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실험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해당 장기의 기능성변화에 대해서도 제때에 정확한 진단을 내림으로써 치료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효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

게 한다고 말하였다.

주체 104(2015)년에 병원을 찾은 한 외국인은 이 진단체계가 10분도 안되어 인체내의 많은 질병들을 예보해주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온몸의 기혈이 돌아가는 통로를 가리키는 경락을 신경계통과 결부하여 과학적으로 밝힌 경혈신경도전자침구모형체계를 만들어 고려치료의 과학화를 실현해가고 있다.

병원에서는 고려의학고전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고려의학3대고전 가운데서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의 수자화를 완성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의 림상효과를 판정하였다.

또한 고려의학부문의 먼거리 의료봉사체계를 더욱 완비함으로써 각 도의 고려병원들과 원격강의, 원격상담 및 원격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려의료봉사의 질을 높이고 있다.



먼거리의료봉사실에서

고려의학종합병원에서는 해마다 고려의학부문의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국내에 널리 소개하고 있으며 주체107(2018)년부터 《국제고려의학잡지》(영문판)를 출판하고 있다.

고려의학종합병원에서는 매해 전국적인 고려의학부문 과학토론회와 학회별토론회를 조직하여 연구성과들과 림상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 부부체육교원



홍성철, 김창숙부부

조국의 체육인재후비육성에 성실한 땀과 열정을 다 바치고 있는 교육자들 속에는 부부체육교원들도 있다.

그들 중에는 조선체육대학 권투강좌 교원인 홍성철과 평양시 서성구역청소년체육학교 탁구지도교원인 김창숙부부도 있다.

물론 권투와 탁구라는 종목

상특성으로부터 이들의 교육 분야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20여년전 가정을 이룬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들 부부는 하나의 지향을 안고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합치고 있다.

하다면 이들의 공통된 지향은 파연 무엇이겠는지…

7살부터 탁구를 시작한 김

창숙은 국내경기에서는 여러 번 우승하였지만 국제경기에서는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그후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선 그는 미래의 탁구 강자들을 키워내는 것으로써 이루지 못한 꿈과 희망을 실현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소조원들의 탁구훈련지도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하루에만도 수백번의 반복동작으로 소조원들에게 탁구기초기술을 배워주었고 때로는 적성체질을 가진 어린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구역안의 유치원들과 학교들을 찾아 많은 걸음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기울인 노력에 비해 소조원들의 탁구기술은 크게 진전이 없었다. 지어 일부 소조원들은 그의 높은 요구성에 견디지 못하여 소조에도 잘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4살부터 11살되는 어린 소조원들에게 지나친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더해주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동요도 하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열정을 더해준 사람은 남편 홍성철이였다.

《물론 전도양양한 선수후비를 키운다는 것이 품도 많이 들고 한두해사이에 빛을 볼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리고 10년, 15년 후에 제자들이 성공한다

고 해도 담당감독들처럼 이름이 크게 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보람은 조국앞에 훌륭한 제자들을 내세우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언제인가 맥을 놓고 주저앉았던 김창숙에게 홍성철이 한 말이였다.

전문체육단에서 감독으로 사업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홍성철은 10년전 석사학위를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건의 론문들과 다매체편집물을 만들어 교육사업에 이바지한 능력 있고 경험 많은 교원이였다.

모든 문제를 교육자의 자세에서 대하는 그에게 있어서 안해의 사업은 자신의 일과 같았다.

저녁시간이면 홍성철의 화제는 자연히 안해의 교수훈련과정에 있은 이야기로 이어지곤 하였다.

운동감각은 좋지만 속도힘이 약한 은혜의 부족점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는지, 발이 동이 불안한 봄향이의 훈련지도에서 모방훈련이 파연 효과적인 방도로 되겠는지…

나이와 성격, 취미에 따라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훈련방법이 다 달라야 한다.

남편이 주는 이 하나하나의 의견은 토론을 거쳐 곧 실천에 옮겨졌다.

김창숙은 소조원들의 나이별 심리적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애완훈련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사물현상들을 세심히 관찰하게 하는 한편 그림도 그려보게 하였다. 소조원들은 이 과정에 대상을 신속히 포착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추리능력과 반응 속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



에서 진행하는 탁구를 통체조도 역시 경기에서의 심리조정과 경기담을 키우는데서도 효과가 매우 좋았다.

실농군에게 나쁜 땅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의 노력은 소조원들의 경기성과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오늘 평양시 서성구역청소년체육학교 탁구소조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실력이 만만치 않은 강팀으로 소문이 났고 많은 소조원들이 여러 체육단에 선발되어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있다.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탁구

종목 여자단식경기에서 3위를 한 김송이와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1위를 한 차일심도 김창숙이 키운 제자들이다.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책임적이고 영예로운 교단에서 더 많은 체육인재들을 키워낼 하나의 지향을 안고 땀과 열정을 바쳐가고 있는 부부체육교원자, 이들과 같은 교육자들이 있어 체육인재후비들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국제경기무대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체육인들의 모습을 보면 체육의료연구사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나 없을것이다.

합흥철도국체육단 의료연구사 배경춘은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나라의 리세팡선수가 국제경기에서 또다시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 원예사와 살구연구사

배경춘을 아는 사람들과 체육인들은 그를 『살구연구사』라고 정답아 부르고있다.

한것은 그가 조국의 흔한 살구로 20여가지나 되는 기능성영양식품들을 개발하였기때문이다.

30여년전이였다.

처녀시절 그는 평안남도 대홍군에서 원림사업소 원예사로 일하고있었다.

언제인가 그는 회령시에서 가져온 수종이 좋은 백살구묘목들을 심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회령사람들은 살구를 장수파일이라고 하는데 정말일가? 왜?)

이런 생각은 집요하게 그의 머리속에서 맴돌았

체육인들과 함께 있는 배경춘(오른쪽에서 다섯번째) 주체109(2020)년 1월 중순 촬영



다. 원인을 알고싶었다. 그는 군도서관에서 역사, 지리, 의학도서들을 모두 찾아보다못해 나중에는 휴가를 받고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도 갔었다. 욕망은 커지만 그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는 그를 보고 결사람들은 고무도 해주고 한켠으로는 회의심도 가지였다.

『경춘이가 정말 수고를 하누만. 살구가 건강에 좋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없겠는데 그 무슨 비밀을 밝혀내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때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20대의 산골쳐너가 멀지 않은 앞날에 살구연구사로 될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 스스로 찾은 행복

살구의 비밀을 알고싶었던 배경춘의 소박한 꿈은 가정을 이룬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살구계절이 오면 보리길금을 이용하여 살구엿을 만들곤 하였다. 그 방법은 수십 차례의 실패를 거쳐서야 터득되었다. 살구엿은 남편과 어린 자식들의 건강을 지켜주었다. 동네사람들이 그에게서 살구엿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했다.

그는 『살구엿을 장복한 때부터 감기나 소화장

애로 약을 먹는 법이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기뻤다.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려는 애국의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가슴속에 조용히 자리잡았다.

그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인체생리학과 생화학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편제없는 『연구사』가 된셈이였다.

그 과정에 민간에 알려진 살구의 약효는 셀수 없이 많지만 크게 4가지 즉 살균효과, 혈액정화, 활력증진, 피로회복이라는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다른 파일에 비해 볼 때 살구속에 운동능력과 피로회복을 촉진시킬수 있는 레몬산함량이 대단히 많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소녀시절 저는 어머니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살구연구를 하는것이 그렇게 좋은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닌 자기가 하고싶어 하는 일은 꿀처럼 달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그의 딸 배순임의 말이였다.

## 20여년이 지난 후

배경춘의 연구는 순간도 멈춤을 몰랐다.

살구가 육체적부담이 큰 체육인들의 경기전 최고몸상태조성과 피로회복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것을 새롭게 밝힌 그는 합흥철도국체육단 의료연구사로 사업하였다.

그가 개발한 피로회복제는 체육인들이 다른 나라의 피로회복제를 쓸 때보다 훈련과 경기성과에서 그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 피로회복제는 전국의 여러 체육단들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그는 함흥의 학대학을 졸업하고 살구연구를 함께 하고있는 딸 배순임과 살구울리고당을 개발하는데 기초하여 20여가지의 기능성영양식품들도 만들어냈다.

아름다운 살구꽃이나 맛좋은 살구열매는 한계 절 피고졌어도 그들이 개발한 살구울리고당은 계절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되었다.

흔천의는 중세기 우리 나라에서 천문학수치들을 재는데 쓴 천구의 (항성들, 별자리들, 적도, 해길, 적도자리표 등을 표시한 구)이다.

흔천의를 흔의라고도 하였다.

19세기 중엽의 우리 나라 책 『의기집설』에 의하면 흔천의로는 천구 우의 적도, 해길, 지평선, 남북방향,

## 상식

## 흔천의

북극의 높이,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과 자리, 24절기 등 19종의 천문학 수치들을 챌수 있었다.

흔천의로서 널리 알려진 것은

1433년에 정초, 박연, 김진, 리천, 정린지 등이 만든 금속으로 된 흔천의이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이 흔천의로 쟁 천문학수치들은 오늘날 천문학에서 쓰는 값들과 비슷하다고 한다.

\* \* \*



딸 배순임도 살구영양식품개발을 하고있다.



자료연구에 열중하는 배경춘모녀

살구울리고당은 평양국제건강 및 체육과학기술 전시회와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 전람회들에서 특등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증서를 받았다.

얼마전 배순임은 살구울리고당영양액이 체육선수들의 항산화능력과 속도힘인내력에 미치는 영양에 대한 연구론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지가 잇달아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딸에 못지 않게 어머니 배경춘도 가치있는 논문을 쓸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배경춘은 머리를 저으며 『살구연구가 체육인들의 우승에 이바지되었다면 나는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김춘혁

# 보이지 않는 교단에서



장대길

그림책을 읽어하는 아이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의인화된 동식물들과 신기하고 기적적인 현상들, 다양한 인간생활을 비롯한 재미있는 내용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손에서 그림책을 놓을 줄 모르게 한다.

언제나 아이들의 다정한 길동무로 되는 그림책, 그 창작에 재능과 열정을 바쳐가는 사람이 있다. 그는 교육도서출판사의 공훈기자 장대길이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5살때에 각이한 모양의 자동차들을 신통히 그려 사람들을 놀래웠다고 한다. 이러한 재능은 그로 하여금 남달리 그림책을 좋아하게 하였고 앞으로 그림책창작가가 되려는 꿈도 지니게 하였다.

그는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처녀작인 『토끼와 코끼리』를 내놓았고 련이어 『너도나도 하하하』(1-10), 『웃음과 지혜』(1, 2)를 비롯한 그림책들을 창작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생활은 창작의 풍부한 소재였다. 그는 유치원들에 나가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며 어떤것을 보고 싶어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 떠오른 착상들이 그림책의 소재, 대사, 그림으로 옮겨졌다.

언제인가 그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들이 우리 나라의 애국명장들과 혁신물들은 물론 세계적으로 이름난 과학자들과 발명품도 알고 있는데 대해 놀랐다. 6~7살밖에 안되는 아이들의 상식수준은 선한것과 악한것, 좋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에 대한 인식교양을 위주로 해온 자기의 창작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였다.

그는 그림책이 인식교양과 함께 아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킬 수 있는 교재로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다.

그때를 떠올리며 그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인류가 창조한 지성세계를 다 배워주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은 것이 나의 열망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파연 어떤 내용들이 동심에 맞으면서도 판찰력과 사고력 등을 키울 수 있겠는가. 그의 사색

은 온통 아이들의 지능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림책 창작에 가있었다.

그러자니 자신부터 배워야 할것이 많았다. 문헌자료가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가곤 하였고 다양하면서도 깊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많은 도서들을 탐독하였다. 조선대백과사전, 조선말대사전, 동물백과사전, 조선지도첩을 비롯하여 그가 읽지 않은 책이 없을 상싶었다. 뿐만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그림책제작 및 편집기술을 소유하고 외국어실력도 일정하게 갖추어나갔다.

남다른 목표를 내세우고 분투한 결과 그는 어린이들의 지능계발과 정서교육에 중심을 둔 『어린이지능계발』(1-20)과 『무엇이든지 알고싶어요』(1-10), 『나 혼자 해요』(1-32) 등을 련속 창작하였다.

그가 집필과 편집, 장정과 그림을 맡아한 전 10권으로 된 지



장대길의 창작품에는 아버지 장운석의 방조도 깃들어있다.

육아원들에 보내주었다.

근 350종에 달하는 그림책들을 창작하였지만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하루에도 몇번이나 보지만 맨 뒤장에 적혀있는 창작가의 이름은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그 보이지 않는 교단의 선생님이라는 책임과 궁지를 안고 자기를 바쳐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창작품들의 일부



제30차 전국사진경연작품들중에서



금강산 집선봉의 구름

사진 리충성

# 과학농사의 열풍이 이는 고장



이삭마다 알찬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  
힘의하는 농장의 기술원들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하는 리일군들과  
농장원들

영농공정장악도 컴퓨터망으로 하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있는 리관식동포의 고향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리에로 이어졌다.

재령강과 은파천, 통수천이 흐르는 곳에 자리잡고있는 마을 이라는데로부터 불리워온 삼지강리.

변모된 고향의 모습을 하루빨리 동포에게 전해주고싶은 마음이 앞선 우리의 발걸음은 소재지입구에서 멈춰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전시기와는 또 다르게 변모된 마을이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안겨왔다.

고향마을을 더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려가는 삼지강사람들의 지향을 한가슴에 안아보는 풍치여서 전국의 앞장에 서있는 농장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찬사가 저도모르게 터져나왔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뜨락또르의 세찬 동음에 현실로 돌아온

우리는 마을앞에 펼쳐진 나무리별에 눈길을 주었다.

적재함이 넘쳐나게 거름을 가득싣고 규격화된 논배미들을 누비는 뜨락또르들, 걸싼 일솜씨로 별의 곳곳에 김이 물물 퍼여 오르는 거름더미들을 무져놓는 농장원들...

겨울의 추위는 모든것을 얼구었지만 새해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삼지강리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풍요한 가을이 깃든듯 싶었다.

이윽고 우리는 철참에 웃음꽃을 피우던 제5작업반의 농장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해 심한 자연기후의 영향 속에서도 알곡생산을 훨씬 늘이 였다는것과 자기네 작업반이 농장적으로 1등을 하였다는 그들의 말속에는 남다른 자랑이 담겨져있었다. 그럴수록 이미 수확한 뒤여서 지난해의 작황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커갔다.

농사를 잘 짓게 된 비결에 대해 묻는 우리에게 임농일작업반장은 『과학농사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농장의 과학농사에 대해 좀더 알고싶은 마음을 안고 그와 함께 농업과학기술보급실로 향하였다. 1층의 분석실을

거쳐 2층의 넓다란 방에 들어서니 컴퓨터를 비롯한 설비들이 그흔히 갖추어져있었다. 포전들에 설치한 감시장치 통하여 농작물생육과 병해충발생상태 등을 항시적으로 관찰하고 즉시 기술적대책을 세울수 있게 하는 컴퓨터와 투영기, 영상표시장치 그리고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바람방향과 속도, 강수량 등을 측정하여 컴퓨터에 현시되게 하는 최신기상관측설비들...

그런가 하면 품종별특성파재 배방법에 따라 비배관리를 하면서 생육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분석종합한 자료들, 그에 맞게 영농공정별로 조직진행한 기술학습, 전습회들의 자료까지 컴퓨터에 구축되어있어 농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었다.

차운철 농업과학기술보급원은 지난 시기에는 몇몇 관리일군들과 작업반기술원들이 오군하였는데 지금은 그 누구라 할 것없이 이곳에 찾아와 최신농업과학기술지식을 배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100여명의 농장원들이 지금 평양농업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의 원격교육학부에서 공부하고있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이어 우리는 여러 작업반들을

돌아보았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농사를 지을수 없고 좋은 작황을 거둘수 없다는 관점이 꽉 자리잡고있었다.

제7작업반의 농장원 황보영철은 지난해 과학적인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매 포전에 필요한 유기질복합비료량을 규정하고 논과 밭에 낸 결과 많은 알곡소출을 낼수 있었다고 하였다.

농장원모두가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여 한해농사의 전과정을 과학농사로 확고히 전환하였으니 어찌 풍년결실을 안아오지 않을수 있으랴.

오랜 옛적부터 이 고장농민들이 대대로 부쳐오던 나무리별.

모진 세월 부모들과 명든 어깨로 가대기를 끌며 밭을 뚜지였을 리관식동포가 오늘의 삼지강리를 찾는다면 아마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옥토로 전변된 고향땅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볼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갈마들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마을의 곳곳에서 밝은 불빛이 쏟아져나왔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 아버지의 삶을 두고

옛글에 《락화난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진 꽂은 다시 펼 수 없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고철훈 전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소장)는 바람세찬 이국 땅에서 소중히 간직하였던 꿈을 조국에 와서야 꽂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사까부 후세시에서 막벌이군의 딸아들로 태여났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문학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남매나 되는 가난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재능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희망이 꽂고 나게 된 것은 조국의 품에 안겨서부터였습니다.

주체49(1960)년 4월 제15차로 조국에 귀국한 아버지는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사회과학원 연구원을 거쳐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당시) 연구소로 일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무료교육의 혜택 속에서 마음껏 배운 아버지는 고마운 조국에 이바지해 갈 일념 안고 연구사업에 심신을 바쳐갔습니다.

그 나날 아버지는 현실체험과 함께 조국애를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더 깊이 연구완성하기 위해 오래동안 지방에 내려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정든 집을 떠나 때로 공장에서 일도 하며 연구사업을 하자니 애로되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꾸준히 단련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내밀었습니다.

피터는 노력이 있어 얼마 후 아버지는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 하였습니다.

때로 힘에 부치여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

주며 힘과 용기를 더해준 많은 사람들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일어서 군하였다.

그후 아버지는 보다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하였습니다. 이미 완성하였던 논문을 심의제출하는 한편 사회과학대학의 교원직을 겸하면서 후비육성과 함께 사회과학원의 발전역사에 대한 집필도 도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힘은 꼽절 들었지만 한 일이 적다시며 연구과제를 더 맡아한 아버지였습니다. 《문학예술의 주체성과 민족성》, 《조선문학작품편람》 등을 비롯한 수많은 도서들과 우리 나라 문학예술분야의 첫 다매체전자사전의 편찬사업 등에서도 아버지는 주편찬자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건의 가치 있는 소론문들을 내놓았습니다.

연구소의 소장, 나라의 문예학학회 회장, 국가학위학직심의위원회 문학분과 위원장 등의 중임을 지니고 바쁜 아버지였지만 연구사업만은 순간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연구완성한 도서가 전30권으로 된 《조선문학전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창조한 문학유산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이 도서집필은 참으로 방대하고 아름찬 것이였지만 아버지는 주저없이 여기에 뛰여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아버지는 앓던 병이 도지어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하루빨리 도서를 내놓기 위해 집필에 온력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애쓰시다가 마지막 도서집필을 끝낸 아버지는 현장에서 순직하였습니다.

그 나날 아버지는 후보원사, 교수, 박사의 학위학직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표창장과 높은 급의 국가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많은 국가적인 대회의 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일흔 번째 생일 상도 보내 주시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영광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내세워주는 조국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한생을 빛내여 가려고 합니다.

평양시 평천구역 룩교2동 고충성

## 민족적 존엄과 권리의 지켜

올해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된 때로부터 65년이 되는 해이다.

총련의 결성은 재일조선인운동과 재일동포들의 운명개척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게 한 일대 사변이였다.

총련이 결성되기 전 재일조

선인운동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조난선처럼 존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

일본당국의 민족배타주의적 책동으로 멸시와 차별, 박해와 탄압이 더욱 강화되고 일부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에 물젖어 있던 자들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한사코 방해해 나섰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동포들이 비록 이국땅에 살고 있지만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

국운동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한 선을 내놓으시였다.

하여 주체44(1955)년 5월 25일 새형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이 결성되게 되었다.

총련의 결성으로 재일조선인운동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에 총련의 각급 조직들이 무어지고 확대 강화되었으며 주권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중적 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동포들은 《출입국법》과 《외국인학교법》 조작음모, 《영주권신청》과 귀화 강요책동 등 민족적권리를 침해하는 반동 세력들의 책동들을 폭로 분쇄하며 공화국공민권과 제반 민족적 권리들을 지켜내였다.

귀국의 권리와 조국

래왕과 제3국에로의 려행의 길도 넓혀나갔다.

총련은 이와 함께 민족교육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 발전을 위하여 초급학교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민족교육체계를 세웠다.

중요하게는 일본당국의 민족 교육에 대한 탄압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새 세대들이 4·24 교육투쟁으로 선대들이 지켜온 우리 학교를 대를 이어 지키고 빛내여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 학교들에서 일본반동들의 동화, 귀화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꽂고 워나가기 위한 교육에 힘을 넣어 새 세대들이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고수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동포들 모두가 민족교육사업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지키는 사활적인 문





제로 간주하고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나갔다.

지난해 민족교육을 지키고 재일동포 사회의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실천활동은 역사의 한 페지를 기록하였다.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지불을 중지한 것도 모자라 일본당국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 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하는 치졸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교육을 지키고 강화발전시키는데 총련의 존망과 애국위업의 성패가 달려있고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을 지켜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자각한 재일동포들은 대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항의투쟁을 벌려나갔다.

총련은 올해 11월에 진행될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을 향하여 총련지부와 분회, 단체기총조직들을 애국애족의 뜻음직한 성돌로 더 굳게 다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다.

지금 동포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갈 결의를 굳게 다듬고 있다.

본사기자 김리정



## 40여년, 학문에 전심하여



강정진

『이젠 나이가 들어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평양기계대학 자동화공학부 자동화공학강좌 교원 강정진은 대학교육에 뜻을 두고 인재양성과 과학연구에 몸담고 어온 순간들을 떠올리였다.

주체36(1947)년 중국 길림시에서 태여난 그는 소학교시기 모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낸것으로 하여 무시험으로 당시의 심양대학부속 중고급학교 초급반에서 공부하였다. 주체51(1962)년에 조국으로 나온 그는 군사복무를 하고 평양기계대학

에서 자동화를 전공하였다. 대학졸업후에는 교원생활로 자신의 리상과 포부를 펼쳤다.

『대학교원이라면 학생들을 가르치는것이 임무이겠지만 나라의 자동화공업발전을 추진하는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이 말을 실천에 옮겼다. 강의를 하는 속에서도 그는 연구사업에 열정을 쏟아부어 공장, 기업소들의 자동화실현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는 1980년대에 반도체 및 집적회로의 분류와 품질검사면

실습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정진 주체109(2020)년 2월 상순 촬영



42

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기술적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가 개발한 반도체 및 집적회로특성시험기는 자동화요소들을 부류별로 정확히 갈라낼수 있게 한것으로 하여 나라의 자동화공업발전에 기술적지원을 제공하고 이 분야에서 일반화를 실현하였다.

그는 교원들과 함께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 연구성과로 생산장성을 추동하였고 경제적수익도 높여주었다.

그는 과학연구를 집짓는것과 같다고 보았다. 모든것을 령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듯이 기초연구를 중시해야 하며 벽돌 한장이라도 빠져서는 안되듯이 학문탐구에서도 성실하고 실무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꾸준한 과학연구로 달성한 성과들은 그가 받은 수많은 중서들이 잘 말해준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인재양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교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가고 있다.

그의 제자였던 자동화공학강좌장 리명호는 『지금도 일목료연하게 강의를 하던 선생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강의를 그렇게 하는것이 많은 품이 든다는것을 수년간의 교원생활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강정진은 대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겁다고 한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몰두하면서 가장 깊이 느꼈던 점이라면

그것은 착실하게 일해 나라를 만들고 튼튼하게 하는데 자기를 바칠줄 아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나는 더 분발하게 됩니다. 이는 저를 고무해주는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학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교원, 강좌장, 학부장으로 40여년, 이 나날에 그는 학문에 전심하여 『기계적량의자동측정』, 『지능조종』을 비롯한 교파서들과 참고서들을 집필하였고 박사 3명과 석사 9명을 양성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오늘 자동화공업부문의 골간으로, 큰 공장의 일군으로, 대학의 강좌장, 학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일흔을 넘긴 그에게는 중국에 형제들이 있다. 언제인가 상해 동체대학에서 실습하던 그를 만난 누이들과 소학교, 초급반동창들이 그의 성장을 두고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가족들과 함께 주체108(2019)년 9월 촬영



43

## 조선 속 담 (겸손성)

- 병에 찬 물은 저어도 소리가 안 난다

실지로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티를 내지 않고 겸손함을 이르는 말이다.

- 절하고 뺨맞는 일 없다

언제나 겸손하고 남을 존경하면 팔세를 받거나 봉변을 당하는 일이 없음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지위가 높을수록 마음을 낮추 먹어라

① 지위가 높아갈수록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② 높은 지위에 등용될수록 욕심을 부리거나 야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아는체 하지 말고 모르는체 하지 말라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솔직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 \* \*

#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보건제도

얼마전 한 재미동포는 《조선에는 없는것이 없다》라는 글에서 조선에는 재벌도 사치도 뇌폐도 사대도 거지도 없을뿐 아니라 좋은것이 많다면서 오염되지 않은 언어와 문화, 무상주택,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을 꼽았다.

여기에서 동포가 본 조선에서의 무상치료제만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공화국의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지난 세기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2(1953)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평화시기도 아닌 전화의 날에 이런 시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상상밖의 일이다. 그후 온갖 형태의 의료봉사를 무료로 하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한 조선은 보건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계속 늘리였다.

1980년대초 공화국의 보건 예산은 1940년대말에 비하여 112배로 장성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도, 시(구역), 군, 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체계를 가진 인민병원들이 완비되고 주체101(2012)년말까지 중앙병원으로부터 군인민병원들을 연결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세워졌다. 더우기 예방의학적정책에 의해 의사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에 나가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것은 공화국의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공화국의 이러한 보건시책으로 하여 사람들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에서는 물론 치료비와 약값을 전혀 모르고 각종 의료혜택을 받고있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신문에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들이 나라에서 받는 사회적혜택인 치료비가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복속에서 복을 모르는 행복한 사람들이다.》고 평한것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웅심깊은 어머니처럼 공화국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보건사업에 지출하고 있으며 그것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다.

20세기 중엽 공화국에서는 인구사망률이 급속히 떨어져 주체49(1960)년부터 1980년대초까지

의 20여년기간에 평균수명이 58.3살로부터 74살 즉 15.7살 늘어났다. 이것은 같은 기간에 2.0살, 2.2살정도밖에 안되는 서방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람들이 평균수명을 2배로 늘이는데 웅근 한세기, 두세기가 걸렸지만 공화국에서는 반세기밖에 안 걸리었다는것을 알게 한다.

그후에도 공화국에서는 보건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었다.

최근시기에만도 평양시에 평양산원유선종양연구소, 류경치파병원, 옥류아동병원, 류경안파종합병원 등이 현대적으로 일떠서고 지방의 여러 병원들이 개선되어 의료봉사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어가고 있다.

몇해전 세계보건기구는 조선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기초의료분야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하면서 조선의 보건제도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다, 가장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하여 예방접종률이 증가되고 어머니와 어린이건강증진에서 나날이 좋은 결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였다.

보건제도를 통해 본 판이한 현실은 과연 어느 제도가 인류가 바라는 리상사회인가 하는것을 응변으로 립증해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소장일행도 중앙으로부

터 도, 시(구역), 군에 이르기까지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짧은 기간에 확대되게 된것은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나 《복지사회》라고 떠들며 인권을 넘불처럼 외우는 서방의 적지 않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치료비가 엄청나 일반사람들은 병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의료비가 비싼 나라들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이 나라의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이러한 구실을 내걸고 필요없는 진찰이나 검사, 수술 등을 하여 돈을 털어내고 있다. 그러다니 환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가 오히려 무섭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병원에 한번 갔다오기만 하여도 수백US\$가 들며 보통진찰비 100US\$, 이발 1대 뽑는 치료비 500US\$, 구급치료인 경우 하루 입원비만도 1 000US\$가 훨씬 넘는다. 혼한 충수염수술을 받으려고 해도 몇만US\$를 내야 하니 심장수술이나 뇌수술같은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의료보험》이라는것이 있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돈이 없어 거기에 들지 못해 병이 나도 치료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제도를 통해 본 판이한 현실은 과연 어느 제도가 인류가 바라는 리상사회인가 하는것을 응변으로 립증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 무엇을 노린 도자기략탈이였는가

조선의 도자기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이웃나라들에도 널리 알려져있었다.

지난 세기 전반기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많은 문화재들을 파괴, 략탈하였다. 그 가운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의 하나가 바로 여러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도자기이다.

일제는 침략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도자기 략탈을 위해 도굴, 강탈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일제의 도자기 략탈만행이 얼마나 날강도적인가 하는 것은 도자기를 얻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제일 공경해온 조상의 무덤을 백주에 도굴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란적으로 강행된 일제의 도굴략탈만행에 의해 고려시기의 옛무덤들이 완전히 파헤쳐져 폐허로 변하였다. 이 과정에 부장품으로 묻히었던 수백만점의 고려자기들이 략탈당하였다.

당시 고려자기에 대하여 언급한 도서들에서는 고려자기들이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모두 도굴 품이라는것에 대해 밝혀져 있었다.

고려자기 략탈의 맨 앞장에는 조선통감이나 조선총독을 비롯한 우두머리들이 있었다.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는 조선의 도자기를 대대적으로 긁어모아 일본으로 빼돌리였다.

초대조선총독이었던 데라우찌는 고향에 《조선관》을 설립하고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수천점에 달하는 문화재를 소장하였다. 그중에는 고려시기 무덤들에서 도굴한 고려자기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있었다.

그러자 그자들의 본을 따서 형형색색의 인간쓰

례기들이 바다건너 조선으로 기여들어와 앞을 다투어 도자기 략탈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살림집 부엌이나 헛간의 구석구석에 있던 도자기까지 모두 빼앗아갔다. 그러나 이 시기 평양부근의 민가에는 기름병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자기제품들이 흔적을 감추었다.

어떤자는 박물관설립과 유물구입의 미명하에 도자기를 략탈하여서는 경매를 통해 공개적으로 매도하였다. 또 어떤자는 도굴품을 가지고 빼앗아 전람회를 여는 과정을 벌리였다.

어느 한 미술구락부의 사장으로 있던 일본인 사사끼의 말에 의하면 경매회는 밤에만 열렸으며 그때 개성출토품이라고 하는 고려자기가 버들고리짝에 담겨진채로 내놓아졌는데 모두가 흙이 더덕더덕 묻은것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강도들이 경쟁적으로 고려시기 무덤들을 도굴하였으며 고려자기들을 손에 쥐자마자 즉시 경매장에 내놓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제침략자들이 도자기 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뛴것은 고려자기의 예술적가치나 고고학적가치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조선의 우수한 민족문화를 파괴략탈하여 조선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말살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그 방법에서나 수탈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무도한 일제의 도자기 략탈만행은 오늘도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제와는 백년, 천년이 흘러가도 끝까지 결산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본사기자

## 상식

## 40대의 건강을 뒤받침하는 음식

40대에 들어서면서 비만증, 고혈압, 심장병이 걱정되면 성인병에 방

에 효능이 높은 물고기, 조개류, 바다나물을 많이 섭취하는것이 좋다.

옛날부터 바다의 보물로 알려진 이 식품들은 단백질과 칼시움의 최대공급원천이다.

정어리, 청어, 공치, 굴, 조개류, 밥조개를 비롯하여 물고기와 조개류

의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있다.

물고기에는 이밖에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억제하는 리놀산과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한다.

사람의 몸안에 있는 독성물질을 없애는데 좋은 조개에는 항암물질이 들어있어 이것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바다나물에는 요드를 비롯한 여러가지 광물질이 들어있다. 사람의 몸에서 요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어 로화가 촉진된다. 흔히 어촌들에서 장수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 \* \*

# 평양

평양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도시이며 경치가 아름다운 도시이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평양》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역사책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서부터였다고 한다. 여기에는 《평양은 본시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 또는 왕의 도읍인 왕검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왕검》은 고조선의 시조 단군을 이른 말이며 그가 도읍하였던 성이라고 하여 평양을 《왕검성》으로 불렀다. 여기서 《왕검》은 조선말 《님금/님검》을 리두글자로 쓴 것이다.

역사가들은 평양의 지명유래를 원래 우리 민족의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이름인 《부루나》 또는 그 형태변종인 《바라나》에 대한 리두표기일수 있다고도 해석하고 있다. 《평평할 평》자는 리두표기에서 일반적으로 《부루/바라》에 대한 소리옮김 또는 별(별판)의 옛 형태인 《바라/버리》에 대한 뜻옮김으로 쓰인다.

따라서 넓은 평양별을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담아 《부루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으며 그것을 리두식으로 옮겨 《평양》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고구려 시기에 평양은 동황성, 장안성, 한성, 왕성 등으로 불리웠다.

이 지명들도 다같이 왕이 있는 수도성이라는

## 상식

### 고구려 대동강다리

5세기초 고구려의 왕궁인 안학궁 앞쪽에 있던 대동강다리는 오늘의 평양시 대성구역 청호동과 사동구역 휴암동을 연결시켰던 커다란 나무다리이다.

이 다리는 평양성과 안학궁, 정릉사와 벽화무덤 등과 함께 고구려 시기의 발전된 건축술을 보여주는 역사유적이다.

다리는 총길이가 375m, 너비가 9m로서 당시로서는 대단히 웅장한 다리였다.

다리의 끝조부재로는 대부분 너비가 38cm, 두께가 26cm되는 굵은

나무각재들이다.

발굴된 유적에 기초하여 이 다리의 모습을 그려보면 다리의 입구부분은 부채살모양으로 되었고 다리의 본체우에는 세로보와 가로보를 놓고 그우에 두터운 깔판을 가지런히 깔아 보기에도 좋고 다니기에도 편리하게 되었다. 입구와 본체가장 자리에는 란간을 만들어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물속의 다리기둥(교각)은 각재로 귀틀을 짜고 그속에 돌을 넣는 형식으로 세웠다.

선조들은 이 큰 다리를 놓으면서

못이나 꺾쇠같은 쇠붙이를 전혀 쓰지 않고 모든 이음새들을 사개물림하는 방법 등으로 연결시켰다. 고구려 사람들은 물기와 늘 접촉하게 되는 나무구조물에서는 쇠붙이를 써서 연결시키는 것보다 사개물림하는 방법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리에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대와 같은 부대시설들도 있었다.

이처럼 역사가 오래고 규모가 큰 나무다리유적은 당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 \* \*

데서 유래되었다.

고려는 918년 평양에 대도호부를 설치하고 염주, 백주(배천), 황주, 해주, 봉주(봉산) 고을의 백성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였으며 다음해에는 서경으로 승격시키였다.

당시 고려태조 왕건은 《서경이 산수수려하고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므로 민족의 대업을 이룩할 곳이다.》고 하면서 26년간의 통치기간에 12차례나 평양을 돌아보았다고 한다.

고려봉건국가는 960년경에 개경을 황도로 부르면서 서경을 서도라고 고치였다. 서경이나 서도는 서쪽에 있는 수도라는 뜻으로서 고려의 수도를 개경, 황도라고 부르면서 그에 맞게 평양의 이름을 서경, 서도라고 고친데는 고려봉건국가의 서경중시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후 고려봉건국가는 998년부터 1062년까지 서도로 개칭하였으며 고려말기인 1369년에 평양만호부로 고쳤다가 그후에는 평양부라고 불렀는데 조선봉건왕조 전기간 이 지명으로 통용되었다.

고려시기 인민들속에서는 평양의 이름을 《류경》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그것은 《버드나무도읍》이라는 뜻으로서 예로부터 버드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

## 본사기자



## 강원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2)

### - 가학루 -

가학루는 강원도 안변군 안변읍에 있는 루정이다.

738년-742년에 처음 세운 가학루는 그후 1486년에 다시 지었다.

가학루란 이름은 학이 날아와 앉은 것 같은 루정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가학루는 안변의 객사(려관)인 학성관의 연회장이였다.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하여 훌륭한 건축술을 자랑하던 학성관의 주요건물들은 다 없어지고 가학루만 남았다.

가학루는 다듬은 긴 돌로 나지막하게 쌓은 밀단우에 세운 정면 3간, 측면 3간의 포식두공을 엮은 겹쳐마합각집이다.

가학루에서는 두공조적이 특이하며 기둥과 보의 물림에서도 특색을 찾아볼 수 있다.

대공은 조각장식이 소박하고 간결하나 건물의 억세기를 높이고 안정감을 자아내게 한다.

천정은 통천정을 하였다.

소박하고 간결한 모루단청을 입힌 가학루는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히고 아담하

게 꾸려졌다.

다락집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안팎의 포수가 꼭 같은 것, 두공조각의 기법과 배부른 두리기 등은 고려시기의 건축수법을 많이 이어받은 조선봉건왕조 초기의 건축기술을 뚜렷이 보여주며 건물의 짜임새와 지붕의 곡선미는 주위 환경에 잘 어울린다.

오늘 가학루는 국보적 유적으로 잘 보존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즐거운 문화 휴식터로 널리利用되고 있다.

## 본사기자



# 동특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류철진

얼마전 본사기자는 경공업성 경공업연구원 피복연구소 소장 류철진과 만나 조선녀성들의 민족의상의 하나인 조선치마저고리의 민족적특성과 고유한 색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조선의 민족옷이라면

조선옷전시회에 참가하고 주체106(2017)년 촬영



우리 인민들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먼저 말하는것이 바로 조선치마저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 그렇습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민족적색채가 짙고 독특하고 우아한 미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옷을 대표하고 있으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우선 치마저고리는 우리 여성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그 형태가 조화롭게 다듬어져 있어 독특한 미를 보여줍니다.

구조상 나뉜옷으로 되여있으며 저고리는 앞중심이 완전히 터쳐지고 오른쪽으로 여며입게 되여있습니다. 옷은 그 둔파선

이 하후상박(치마는 길고 저고리는 작고 짧다는 뜻)의 형태로 되여있어 우리 여성들의 몸매에 잘 어울리고 또 입고나서면 몸체의 둔파보다 날씬한 자연선이 부각되어 우아하게 보입니다.

치마저고리의 형태미를 돋구

는 개별적요소들이 동정파 회장, 고름 등도 독특합니다. 특히 동정은 조선옷의 고유한 구성부분으로서 우리 민족옷의 정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요소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예로부터 깨끗하고 정갈한것을 좋아한 우리 여성들은 저고리를 여러가지 색깔의 천으로 만들어 동정만은 언제나 흰 천으로 꾸밈으로써 차림새전반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구어주었습니다.

저고리를 고정시키기 위한 한쌍의 고름도 조선치마저고리에서만 볼수 있는 장식적 가치를 가지는 독특한 요소로서 다른 민족옷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것입니다.

두가닥의 긴 옷고름은 단순히 저고리를 여며 고정시키는 끈으로서만이 아니라 움직일 때나 바람이 불 때 가볍게 날리면서 치마저고리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형태적특성을 더욱 돋구어 줍니다.

기자: 무늬와 색깔 역시 옷의 아름다움을 돋구고 조선민족의 고상한 정서를 보여주는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장: 조선녀성들은 전통적으로 잔잔하고 은근하면서도 섬세한 무늬들을 좋아하였는데 무늬 색깔은 옷바탕색과 조화를 이루는 고상한 색을 선택하였습니다.

무늬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꽃과 나무잎, 풀과 열매 등 자연식물무늬로서 고상한 자연적정서를 질게 풍겨줍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색깔 하나만 놓고도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예로부터 색이 진한것보다 연하고 부드러우며 선명하고 깊이가 있는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로부터 주로 흰색과 옥색, 연분홍색이나 미색과 같은 연하면서도 맑고 부드러우며 맑은 색깔을 택하였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푸른색 등 원색조화로 이루어진 《록의홍상》, 《황의홍상》 차림은 주로 명절옷차림으로 즐겨 입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여성들은 치마색으로 붉은색계열의 색깔을

제일로 여기였는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풍습으로부터 나온것입니다.

기자: 오늘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조선치마저고리의 아름다움을 더욱 뚜렷이 살리기 위한 연구사업도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해마다 조선옷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전국의 조선옷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옷가공기술도 서로 나누고 경험을 교환하면서 민족의 귀중한 옷유산을 더 발전풍부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시기 조선치마저고리가 공

에서 주목되는것은 옷의 기본률과 선과 형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정, 깃, 고름, 소매 등 부분요소들의 크기를 몸매에 알맞게 정하여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살리고있는것입니다.

색깔도 전통적인 색조화수법을 살리면서 저고리

와 치마를 서로 다른 색으로 하고 계절과 나이, 기호에 따라 다채롭게 정하고있으며 옷의 무늬형상도 섬세한 무늬와 소박한 형상을 위주로 하던 지난 시기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 시대적미감이 나게 더욱더 이채롭게 하고있습니다.

옷감도 향과와 다색단파 같은 전통적인 비단류만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선치마저고리야말로 우아하면서도 조선민족의 특색이 잘 살아나는 민족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 민속무용-《돈돌라리》

《돈돌라리》는 함경남도사람들이 가무놀이를 할 때 부르던 대표적인 민요이다. 함경남도의 북청지방을 비롯하여 함흥, 신포와 덕성, 단천 등지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돈돌라리》노래를 부르며 거기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지금도 이 지방 사람치고 이 노래와 춤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명절날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면 남녀로소모두 떨쳐나 《돈돌라리》춤가락으로 하루를 즐긴다.

《돈돌라리》는 원래 고구려의 《동동》과 같이 연원이 오랜 민족의 전통적인 민족가무를 계승한것이다. 조선민족은 오래전부터 가무놀이를 할 때 그 반주에 쓰인 북장단의 울림을 모방하여 《동동다리 동동다리》라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곤 하였는데 그것이 오랜 기간 전해져오는 과정에 함경남도지방에서 《돈돌라리》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 지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민속가무 《돈돌라리》의 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너인들이 흥겹게 물장고를 치고 노래와 춤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무를 시작한다. 흥취가 오르면 그들은 사람들을 춤판으로 불러들여 자연스럽게 춤판을 형성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가락을 맞추어간다. 춤가락들은 열정적인 팔놀림과 장단성이 강한 걷기동작으로 특색 있다.

《돈돌라리》에서는 손목이나 팔을 박자에 맞추어 흔들어 주고 활개치는 동작, 손목돌리는 동작, 손끌을 텁겨주는 동작 등 그 놀림이 아주 활기있고 움직임이 잦으며 적극적인 몸동작들과 보폭이 큰 걷기동작들이 배합되어 률동성과 장단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가락적특징은 진취적이면서도 근면하고 이악하면서도 승벽심이 강한 함경남도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을 반영한것이다.

노래를 보면 가사에 《돈돌라리》, 《리라리라리》와 같은

The musical score for '돈돌라리' includes five staves of music with corresponding lyrics. The lyrics are:

- 1. 돈돌라리 돈돌라리 빠리요  
2. 봄에 가면 둘이 모두 풍년별이라  
3. 절집마다 찾아가면 뜻을풀이라  
4. 일위미다 찾아가면 노래소리파  
5. 간꽃이나 경치좋고 살기가 좋아  
6. 금수파기 금강 돈돌라리요

조홍구들이 여러번 반복되면서 《보배산천》, 《시내강변》과 같은 단편적인 내용들만이 반영되어있음을 알게 한다. 이것은 노래가 순수 춤의 흥취를 돋구어 주기 위해 불리워졌다는것을 시사해준다.

《돈돌라리》의 선률은 6/8박자로서 정서적색채가 밝고 흥취있으면서도 경쾌하다. 노래의 음조는 순차적인 2도, 3도 진행으로 특징적인데 반복의 수법과 간명하고 박력있는 리듬형이 결합되어 단순하고 소박하면서도 탄력있는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노래는 누구나 쉽게 따라부르게 되고 흥취나는 춤가락을 펼치게 한다.

《돈돌라리》는 오늘도 다양한 형식의 음악무용 작품으로 무대에 올라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세상사람들의 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황보은



력사일화

# 화가 정선이 그린 금강산산수화

우리 나라 화단의 17세기말-18세기를 대표하는 사실주의적풍경화가의 한사람인 정선(1676년-1759년)이 어느해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그는 만록동과 구룡연, 삼일포와 해금강의 아름다운 절경을 수십수백장의 그림에 담았다. 그가 그런 산수화들이 얼마나 생동하였던지 마치도 금강산을 그대로 떠옮겨놓은것 같았다.

그러면 어느날이였다.

정선의 옆집에 사는 너인이 안해에게 비단치마를 보내여왔다. 그런데 일이 안될세라 안방에서 그것을 펴보던 안해가 실수로 고기국그릇을 엎지르다니니 아름다운 비단치마가 크게 어지러워지게 되었다. 안해는 커다란 근심에 쌓여 울먹거리기 시작하였다.

말없이 웃기만 하던 정선은 안해더러 눈물을 걷고 어서 치마말기를 뜯고 주름을 펴서 어지러워진 부분을 씻으라고 재촉하였다.

안해는 재빨리 남편의 말을 따랐다.

이윽고 비단치마가 마른 후 정선은 안해가 손질한 비단폭을 방안에 쭉 펴놓았다. 그리고는 비단폭우에 붓을 대였다. 그의 안해는 대체 어찌하려고 하는가 야단하면서 남편을 말렸다. 그렇지만 정선은 그러거나말거나 붓을 자유롭게 놀리기 시작하였다. 잠시후 기름얼룩이 있던 비단폭우에는 금강산그림이 크게 그려졌다.

그 그림이 얼마나 생동하고 섬세하였던지 금강산 1만2천봉우리와 꿀짜기를 빼침없이 다 뚫겨온 듯 했고 현란하기 그지없었다.

정선은 나머지 두폭의 비단에도 금강산을 그렸는데 모두가 기기묘묘하였다. 둘도 없는 보배로 될만 하였다.

그런 후 비단치마의 임자가 찾아왔다.

정선은 그에게 《내가 그림그릴 의욕이 부쩍 동

해있던 참에 마침 댁의 비단치마가 우리 집에 와 있다기에 거기다 금강산 1만2천봉을 뚫겨놓았소. 부인과 딸이 들으면 크게 놀랄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걱정하면서 그림을 가져다 펴보이였다.

비단치마의 임자는 《이것은 천하보물이오이다!》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림을 자기 집으로 가져간 후 푸짐히 음식상을 차려 정선에게 사례하였다.

치마의 임자는 그림 세폭가운데서 제일 큰것은 집안의 보물로 장식하고 나머지 두폭은 때마침 연경(오늘의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가지고갔다.

정선이 치마폭에 그리었던 금강산그림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화사에도 가게 되었다.

마침 그림을 구하려고 왔던 사천성의 중 한명이 그 그림을 보고 참 잘 그렸다고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

중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절간 하나를 새로 세웠는데 이 그림을 부처님뒤에 붙이였으면 좋겠소이다. 약소하지만은 100냥에 파는것이 어떠하신지?》

그런데 이때 남경에서 온 선비 한사람이 자기가 100냥에 20냥을 더 얹어주겠으니 자기에게 팔아달라고 조르는것이였다.

그러자 중이 크게 성을 내며 내가 이미 값을 정하고 사기로 작정한건데 명색이 선비라는 사람이 도리도 없이 논다고 책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150냥을 내놓는것이였다.

허나 그림의 임자는 《저는 당신처럼 그림의 가치를 잘 아시는분을 존경합니다. 스님에게서는 50냥만 받겠습니다.》 하며 그림을 중에게 넘겨주었다.

\* \* \*

옛날 한 마을에 총명한 어린이가 있었다. 그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척척 풀어解决了는데 학문이 높은 대관들도 늘 그에게 말문이 막히곤 하였다.

한번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데 유독 한 심술궂은 대관만이 《어렸을 때 총명한 사람은 커서 신통치

않다.》고 훈잔했다.  
어린이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보건대 대관님도 어렸을 때 매우 총명했겠군요!》

\* \* \*

# 구름밖을 날아오자

봄날의 훈풍이 귀뿌리를 스치는 어느날 우리는 동포들과 함께 평양의 명승으로 소문난 모란봉에 올랐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들이키며 갖가지 꽃들로 단장된 모란봉을 산책 하던 우리는 어딘가에서 《올라간다!》라는 녀인들의 열띤 목소리와 랑랑한 웃음소리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눈길을 돌리니 푸른 나무잎 사이로 뭔가 언듯언듯 보이는것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그네터가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와 동행 하던 김현우동포가 먼저 말하는것이였습니다. 호기심을 품은 일행은 한달음에 그곳에 다달았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우아한 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성들이 그네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민족의상을 한 녀성들의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그네를 타고 오르내리는 녀성들의 모습은 하늘의 선녀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김현우동포의 입가에서는 이런 시구 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웃집 친녀들 짹을 무어 그네뛰니  
허리 잘숨 동인 모습 선녀인듯 꼽구나

그네줄 바람타고 하늘높이 올라가니  
매물 부딪는 소리 숲우에서 들려오네

동포가 시랑송을 마치자 우리 일행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이 박수를 크게 쳐주었습니다.

그는 『그네뛰는 친녀들을 보니 옛 시구절이 저절로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습니다. 허허허...』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일행에게 『지난 세기 50년대 중엽에 우리 조국에서 창작된 가요 <그네뛰는 친녀>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자 동포들은 저저마다 저를 에워싸고 어서 불러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

선녀도 부럽잖게 창공에 나래펴고  
너와 나와 쌍그네로 구름밖을 날아보자  
구름밖을 날아보자 구름밖을 날아보자

동포여러분, 그럼 이 기회에 그날 제가 동포들과 나누었던 그네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네뛰기란 그네대 혹은 깎은 나무가지에 두가닥으로 늘여 맨 바줄(그네줄) 끝에 디디개를 얹고 그우에 올라 앞뒤로 구르면서 높이 날아오르기를 겨루는 조선의 고유한 민족체육종목입니다.

그네뛰기는 배험을 비롯한 온몸을 잘 발달시켜 주며 공간에서 자기의 몸을 가늠할 줄 아는 기능과 대담성, 용감성을 키워주는 등 녀성들의 체력단련에 매우 적합한 종목으로서 민족적 정서와 향취를 풍기는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그네줄은 높은 나무가지에 두가닥으로 든든히 매여놓습니다. 그네줄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안전손목띠가 각각 있으며 그네뛰는 사람들이 두발을 편하게 놓고 구르거나 챌수 있게 디디개가 얹어져 있습니다.

그네뛰기에는 한 사람이 뛰는 형식(외그네)과 두 사람이 마주서서 함께 뛰는 형식(쌍그네 또는 맞그네)이 있으며 보통 승부를 가르는 내기에서는

외그네뛰기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네뛰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네줄을 깎은 나무가지에 매고 앞에 있는 나무가지(또는 꽃가지)를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발로 차거나 이발로 무는 방법, 방울줄을 높이 달아매고 그것을 점점 높여가면서 최고높이를 재는 방법으로 승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디디개밑에 눈금을 박은 줄을 매달아놓고 그네줄이 멀었던 상태에서부터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를 재는 방법으로 승부를 가를수도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기에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그네뛰기가 널리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평양의 그네뛰기가 가장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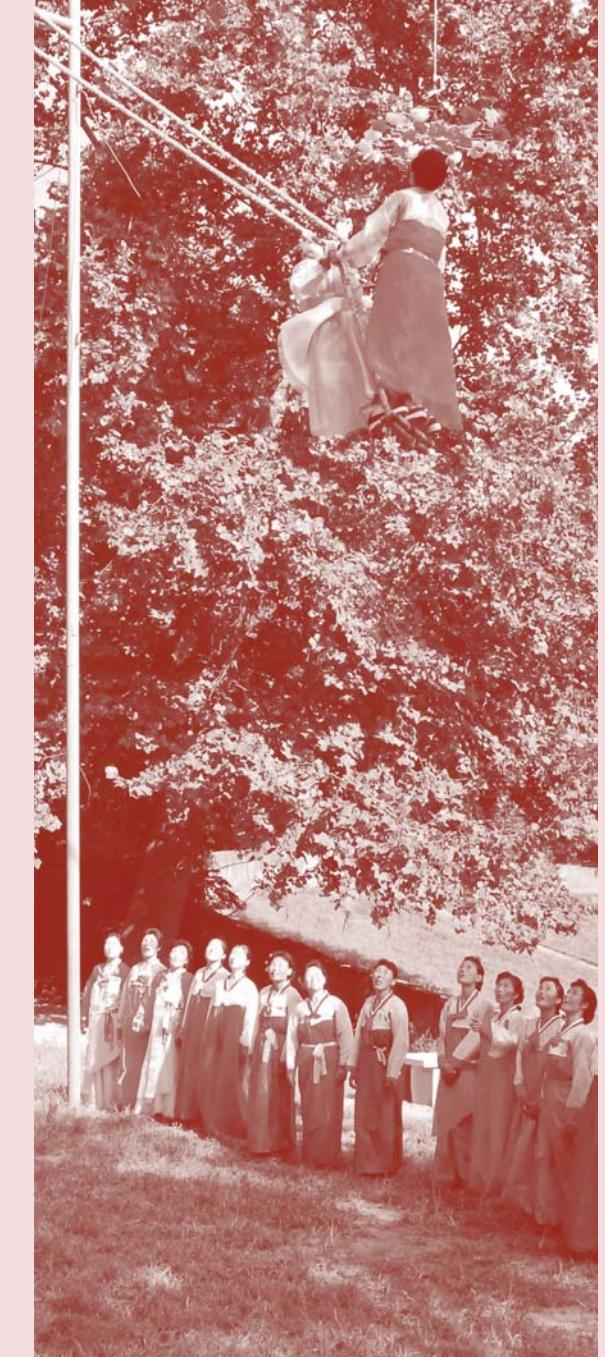
그네뛰기는 고려시기에 민속적인 체육종목으로 널리 성행되었지만 《남녀유별》의 봉건유교도덕과 모순되는것으로 여기고 여러차례나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녀성들은 봉건적인 박해와 구속밑에서도 그네뛰기를 더욱 즐겨 놀면서 민속적인 풍습으로 계승하여왔습니다.

우리 조국의 교예배우들은 여러가지 난도높은 공중비행과 회전동작들, 기교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예술적형상을 높여나감으로써 새로운 교예종목인 《공중그네비행》을 내놓았으며 그것은 오늘도 세계적인 패권적지위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민간에서 뛰는 그네와 양상은 다르지만 지난 수십년간 세계의 공중무대를 활활하게 장식하여오고있으며 수많은 국제교예축전에서 언제나 금상을 받아온 그 종목은 바로 그네뛰기에 뿌리를 두고있습니다.

그럼 창공에 나래펴고 구름밖을 날아예는 선녀가 되고싶은 녀성들이 있다면 조국방문기회에 모란봉의 그네터를 꼭 찾으십시오.

본사기자 연옥



## 역사인물

### 박세당과 그의

### 커서 《색경》

박세당은 17세기 조선의 뛰여난 농학자이며 생물학자이다.

1629년 전라도 남천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글읽기에 열중하였고 사물의 리치를 파악하려는 의욕이 강하여 책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하나 따지면서 파고들었다. 32살에 파거에 급제하여 생원이 되였고 얼마 안 있어 성균관전적이라 는 벼슬을 하였다.

17세기 한심한 농업생산력을 놓고 누구보다 걱정한 그는 하루빨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선진농업 기술을 보급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농업 기술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는 단호하게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가 여러 기술서적들을 탐독하고 직접 농사도 지으면서 새로운 리론을 내놓기 위해 온갖 정열을 쏟아부었다. 40년간의 농촌에서의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 체

험에 기초하여 그는 마침내 농서 《색경》(4권)을 내놓게 되었다.

《색경》(농사짓는데 기준으로 되는 방법이라는 뜻)은 토양학, 동사학, 과수학, 림학, 약초재배학, 축산학, 농가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농촌수공업, 농업기상학일반에 이르는 지식과 경험들을 집대성하고있다.

그는 저서에서 생물체가 주위환경조건에서 어떤 생활방식을 취하며 그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 같은 식물체라도 식물체의 매부위에 따라서 그 질이 서로 다르다는것을 옳게 밝혔다. 그는 다년간에 걸친 실험을 통하여 나무를

접하여 새 품종을 만들 때 결가지를 쓰면 나무기가 작아지고 가운데가지를 쓰면 키가 커지며 밀등에서 나온 작은 가지를 쓰면 5년후에 열매를 맺게 되고 깎은 가지를 쓰면 7년후에야 열매가 달린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여러번 접한 나무의 종자를 심어서 키운 파일나무에서는 종전과는 다른 열매가 열린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리론은 지금도 좋은 파일나무를 얻는데 있어서 실천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색경》은 이 시기 우리 나라의 농업발전과 생물학리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 \*

## 촉석루의 의암

1593년 6월 왜적들은 또다시 진주성을 공격하였다.

당시 진주성안의 군사력은 김천일, 최경희의 병장들이 거느린 의병부대들과 판군을 합하여 모두 몇 천명밖에 안되었다.

하지만 성안의 군사들과 인민들은 력량상 대비도 안되는 적의 집요한 공세를 물리치고 용감히 싸웠다.

그러다가 29일 적들이 성안에 기여들자 성방위자들은 촉석루에서 사품치는 남강에 몸을 던졌다.

최경희의 병장이 희생된 소식을 전달받은 론개는 정신을 잃었다.

론개는 최경희의 병장과 부부의 정을 나눈 사이였던 것이다.

몇 시간이 흘러서야 가까스로 눈을 뜯은 론개는 판을 마련한 다음 최경희가 평시에 입던 옷가지들과 늘 쓰던 활, 화살 등을 한데 모아 그것을 판에 넣어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날밤을 뜯눈으로 밝히며 원쑤갚을 궁리를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론개는 시비 송월에게서 왜적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젊은 부녀들을 끌어가고 있고 또 인물꼽고 가무에 밝은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론개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너무도 태연한 론개의 행동에 송월은 안타까워하며 봉변을 당하려고 그러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론개는 『봉변은 무슨 봉변… 두번다시 얻지 못할 기회이다.』라고 태연히 말하

였다.

어느 날 왜적들이 뜨락안으로 몰려들었다. 왜적들은 단정한 소복차림의 젊은 녀인인 론개에게 래일 오시에 촉석루에 몸단장을 잘하고 오라고, 그때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였다.

론개는 그날밤 원쑤갚을 마음의 준비를 더욱 굳히였다.

날이 푸름 푸름 밝아오자 그는 몸단장을 꼼꼼히 하였다. 치장을 끌낸 론개의 모습은 한뼘 기백 합꽃과도 같았다.

정오가 가까와 올무렵 어제 왔던 왜적이 대문안에 들어섰다. 론개는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촉석루에 이르니 벌써 술판이 한창이였다. 왜적들의 곁에는 강제로 끌려온 기녀들이 징그린 얼굴을 하고 앉아있었다.

그중 지위가 제일 높아보이는 왜장의 곁에 자리를 잡은 론개는 짐짓 웃는 얼굴로 왜장에게 자꾸 술을 권했다.

왜장은 눈이 점점 풀리며 계슴츠레해지더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되었다.

론개는 머리가 아파 바람이나 좀 쏘이고 오겠노라는 뜻으로 손시늉을 해보이고는 자리에서 일어서 걸다가 웃으며 왜장에게 같이 강가에 나가자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이렇듯 의기 론개는 짧은 한 생을 나라 위해 값 있게 바치고 갔다. 후세 사람들은 론개의 의로운 행동을 길이 전하기 위한 마음에서 그가 강물에 뛰여들었던 치마바위를 의암이라고 불렀으며 촉석루 아래 큰 판돌에 비석을 세워 의기 론개의 장한 행동을 찬양하였다.

사람 두셋이 겨우 서 있을 만하였다. 그밑에서는 장마비에 한껏 불어난 강물이 급류를 이루어 사품치며 흘러가고 있었다. 론개는 와- 와- 소리치며 소용도는 탁류를 말없이 잠간 굽어보았다. 그러면서 이 장소야말로 왜장을 수장하기는 참 안성맞춤이라고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론개는 검푸른 물결을 굽어보다가 왜장에게 이렇게 웨쳤다.

『이 왜적아! 원한에 사무친 조선부녀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똑똑히 알아두어라.』

론개의 눈에서는 별안간 불꽃이 튀었다. 그것을 본 왜장은 취중에도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는지 저를 부축하고 있는 론개를 떼놓으려고 하였다.

그 순간 론개는 두손으로 왜장의 허리를 꽉 부여안고 사품치는 거센 물결속에 뛰여들었다.

그러자 왜장의 무엇이라 형언키 어려운 단말마적인 비명 소리가 어두워오는 저녁하늘가에 울려퍼졌다.

이렇듯 의기 론개는 짧은 한 생을 나라 위해 값 있게 바치고 갔다. 후세 사람들은 론개의 의로운 행동을 길이 전하기 위한 마음에서 그가 강물에 뛰여들었던 치마바위를 의암이라고 불렀으며 촉석루 아래 큰 판돌에 비석을 세워 의기 론개의 장한 행동을 찬양하였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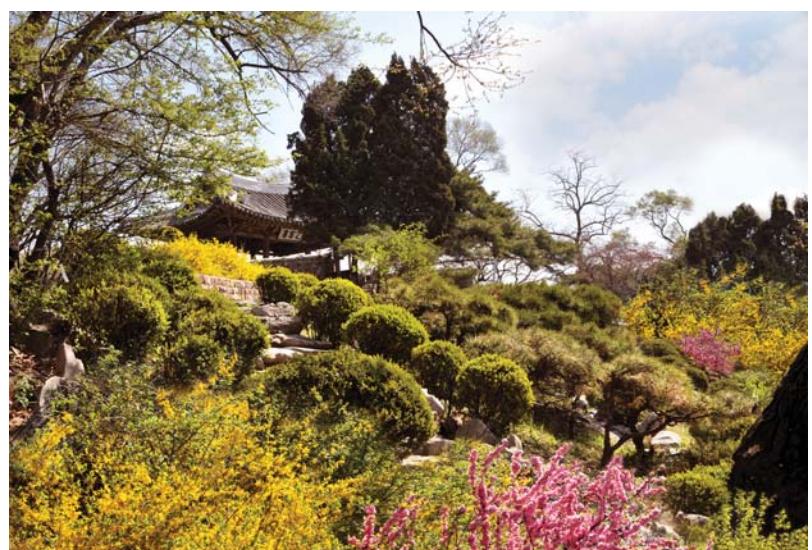
## 명승-모란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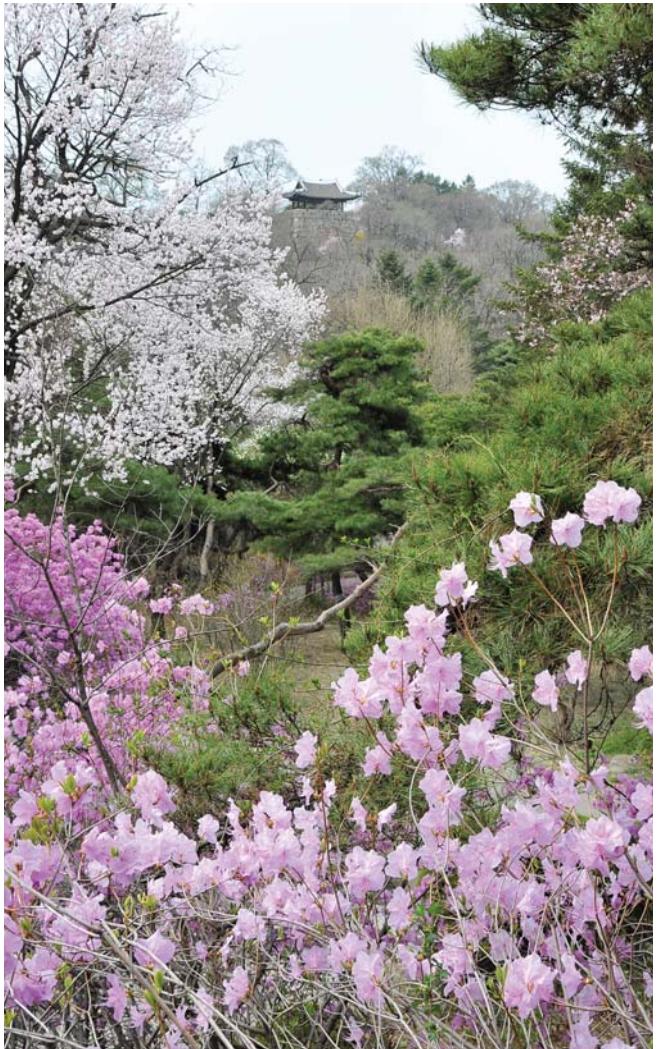
모란봉은 예로부터 조국의 이름난 명승지의 하나이다.

모란봉이라는 이름은 등글등글하게 솟아있는 산봉우리들의

모양이 마치도 금시 피여 오르는 모란꽃을 방불케 한다는데로부터 유래되었다.

기묘하고 조화로운 땅생김, 질은 록음, 철따라 흡계 피여 나는 갖가지 꽃들이 하나로 어울린 모란봉의 경치는 아름답기 그지없다. 특히 사방으로 탁 트인 을밀대의 봄경치나 밝은 달이 등실 떠오를 무렵에 펼쳐지는 부벽루의 풍경은 모란봉의 경치 가운데서도 뛰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을밀대의 봄맞이나 부벽루의 달맞이





주체108(2019)년 촬영



를 평양8경의 하나로 일러왔다.

모란봉의 여러곳에는 크고작은 인공폭포들과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한층 돋구어주는 련못들이 있다.

모란봉의 중간봉우리들과 그 비탈면들에는 많은 정각들이 있다.

이름난 루정, 정각들은 평화정, 애련

정, 승리각 등이다.

이밖에도 모란봉에는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과 현대적 유희시설들이 갖추어진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이 있다.

특히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급강하탑, 회전그네를 비롯한 유희기구들은 모란봉을 찾는 인민들에게 보다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모란봉에는 교육상, 학술연구상 의의있는 천연기념물들인 청류벽회화나무와 모란봉회화나

무화석 등과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고구려시기의 유적들인 내성, 외성을 비롯하여 을밀대, 최승대, 칠성문, 청류정, 부벽루 등이 있다.

오늘 문화휴양지로 홀륭히 꾸려진 모란봉으로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수 많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

본사기자





수풍호반 본사기자 김춘혁

우리 나라 장강들중의 하나인 압록강하류에 있는 수풍호반.  
인공호수중에서 가장 큰 수풍호는 전력생산뿐아니라 공업 및 농업용수  
보장에서 큰 몫을 하고있으며 주변경치 또한 수려하여 인민들의 문화휴식  
터로 널리利用되고있다.

